

봉선사 법요집

봉선사법요집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서원 세워 수행정진하는
사람의 기도지침서입니다.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그분 세존
공양 올려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귀의합니다.

보현보살의 10가지 서원

1. 예경제불원(禮敬諸佛願)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옵니다.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께
눈앞에 계신 듯 큰 믿음으로
청정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끝없이 예경하옵니다.

2. 칭찬여래원(稱讚如來願)

여래의 공덕을 찬탄하옵니다.
시방삼세의 모든 불보살님께
미묘한 음성과 한량없는 말로써
미래세가 다하도록 여래의 공덕을
법계에 두루 찬탄하옵니다.

3. 광수공양원(廣修供養願)

널리 부처님께 공양하옵니다.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 중의 으뜸인 법공양으로
보현행원의 원력을 가지고
한량없이 공양하옵니다.

4. 참회업장원(懺悔業障願)

업장을 참회하옵니다.
옛부터 씬 없이 지어온
우리들의 삼독심을 뒤바꾸어
청정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모든 불보살님께 참회하옵니다.

5. 수희공덕원(隨喜功德願)

부처님의 공덕을 기뻐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루신 선근 공덕과
모든 중생의 티끌만한 공덕을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옵니다.

6. 청전법륜원(請轉法輪願)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시방삼세의 모든 불보살님께서
몸과 말과 생각의 여러 방편으로
중생에게 설법해 주시길 청하옵니다.

7. 청불주세원(請佛住世願)

세상에 오래 머무시길 청하옵니다.
열반에 드시려는 부처님과
유학 무학의 모든 선지식께
일체 중생이 이익 되도록
함께 머무시길 청하옵니다.

8. 상수불학원(常隨佛學願)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발심 정진하여
온갖 고행과 신통 변화로
근기 따라 중생 구제하심을
다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9. 향순중생원(恒順衆生願)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보리의 뿌리인 온갖 중생을
대자비로 섬기고 받들어
평등히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10. 보개회향원(普皆廻向願)

모든 공덕을 회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향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하겠습니다.

차 례

보현보살의 10가지 서원 4

1장 일과기도

일과기도 순서 13

1. 행복경 14
2. 관음정근 19
3. 일과기도 발원문 21
4. 일일 수행 5과 23

2장 예불의례

상단예불

1. 다게(아침예불) 26
2. 오분향계(저녁예불) 28
3. 칠정례 30
4. 행선축원 36
5.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42
6. 반야심경 46

3장 불공의례

상단불공

1. 보례진언 54
2. 천수경 54
3. 삼보통청 84
4. 석가모니 정근 112
5. 관음정근 114
6. 지장정근 118
7. 중단퇴공 120
8. 화엄성증 정근 128
9. 화엄경 약찬계 130
10. 신중현공 142

4장 천도의례

1. 관음시식 176
2. 봉송 220
3. 의상조사 범성계 226
4. 송경의식 242

5장 독송 경전

1. 영가전에	252
2. 우리말 불설아미타경	258
3. 불설아미타경	274
4. 금강경	289
5. 우리말 관세음보살보문품	330
6. 우리말 무상계	352

6장 법회의례

1. 정기법회	
정기법회 순서	360
1) 삼귀의	361
2) 우리도 부처님같이	362
3) 우리말 반야심경	363
4) 발원문	366
5) 청법가	368
6) 법회염송	369
7) 보현행원	374
8) 사홍서원	375
9) 봉선사 예찬	376

2. 연등법회

연등법회 순서	377
1) 연등법회 발원문	378
2) 만족이 제일의 부	381
3. 문병기도법회	
문병기도법회 순서	383
1) 마음의 평화와 행복	384
2) 약사정근	385
3) 문병쾌유 발원문	386

7장 발원문

1. 행복한 가정 발원문	390
2. 사업번창 발원문	392
3. 공양 발원문	395
4. 학업성취 발원문	396
5. 생일 발원문	399
6. 진급 승진 발원문	402
7. 극락왕생 발원문	405

8장 찬불가

1. 수경가.....	410
2.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411
3. 해탈의 기쁨.....	412
4. 관세음의 노래.....	413
5. 사십구재의 노래.....	414
6. 자비방생의 노래.....	415
7. 연등.....	416
8. 불교도의 노래.....	417

1장 일과기도

일과기도 순서

1. 행복경.....	14
2. 관음정근.....	19
3. 일과기도 발원문.....	21
4. 일일 수행 5과.....	23

행복경

mangala sutta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세상에서 존경받는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마침 어떤 천신이 새벽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 타숲을 두루 비추며 부처님 계신 곳으로 다가와서 계송으로 여쭙었다.

많은 천인과 중생들은 최상의 행복을 소원하며 행복에 대해 생각하오니 최상의 행복에 대해 말씀하소서. 부처님께서 최상의 행복에 대해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고
훌륭한 사람을 공경함이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분수에 맞는 처소에 살며
남보다 먼저 공덕을 짓고
스스로 올바른 서원을 세우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널리 배우고 함께 익히며
스스로 절제하고 훈련하여
솟아나는 좋은 생각 서로 나누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부모와 어른들을 섬기고
아내와 자식들을 돌보며
세상 일에 막힘 없으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가진 것을 나누며 바르게 살고
이웃을 보호하고 존중하여
스스로 비난하지 않게 행동하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악한 짓을 싫어하여 멀리 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며
스스로 자기 개발에 힘쓰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존경하고 겸손한 마음과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느 때나 가르침을 받아들이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한결같이 온화한 마음으로
삼보와 스님들을 존중하며
어디서나 가르침을 따라 배우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계율을 지키고 지혜를 닦으며
거룩한 진리를 항상 실천하여
해탈의 길을 실현하오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세상 살며 많은 일을 만나도
처음 마음 흔들리지 않으면
슬픔이나 고통없이 평온하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너희들이 이와 같이 마음 행하면
어디서나 실패하지 않고
뜻하는 일마다 성취하리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관음정근

나무 보문시현 원력홍심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

『옴 아로능계 사바하』 (3번)

신통한힘 구족하고 지혜방편 널리뉘아
시방세계 모든곳에 빠짐없이 나투시네.

사생육도 법계중생 여러집 동안
지은업장 모두 소멸해 주시기를
제가 지금 참회하고
머리숙여 절하오니
죄업장이 모두 소멸되고
태어나는 세상마다
보살도를 행하여지이다.

이공덕이 모든곳에 두루퍼져
우리모두 극락국토 태어나서
아미타불 친견하고 모두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일과기도 발원문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온갖 덕행과
오늘 기도하는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오니
가족이 행복하고 이웃이 편안하며
모두 다 지혜로워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실천되어지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 동안

부처님 이끄시고 관음보살 살피시어
마음 속에 원하는 간절한 소망
원만히 이루어지고
생활하며 일어나는 온갖 장애들
모두 소멸하여지이다.
자애로우신 부처님
저의 신심 더욱 커져
부처 갖춘 이 몸과
신통 갖춘 이 마음으로
이 서원을 실천하고 수행하여
주변에는 향이 되고
먼 곳에는 빛이 되며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일일 수행 5과

1. 합장예배 하자. (식사와 인사 때)
2. 일과기도 하자.
3. 남을 위해 선행하자.
4. 오계를 지키며 생활하자.
5. 맡은 일 성실히 하자.

2장 예불의례

상단예불



1. 다계(아침예불) 26
2. 오분향계(저녁예불) 28
3. 칠정례 30
4. 행선축원 36
5.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42
6. 반야심경 46

상단에불

上壇禮佛

다게 (아침예불)
茶偈

아금청정수 변위감로다
我今清淨水 變爲甘露茶

봉헌삼보전
奉獻三寶前

원수애납수
願垂哀納受

원수애납수
願垂哀納受

원수자비애납수
願垂慈悲哀納受

상단에불

다게 (아침예불)

저희이제 청정수를 감로다삼아
삼보님전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큰절)

자비로 받으소서. (큰절)

대자비로 받으옵소서. (큰절)

오분향게 (저녁예불)

五分香偈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戒香 定香 慧香 解脫香 解脫知見香

광명은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光明雲臺 周徧法界 供養十方 無量佛法僧

헌향진언

獻香眞言

『옴 바아라 도비야 흠』 (3번)

오분향게 (저녁예불)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광명구름 두루하여 시방세계 한량없는

삼보님전 공양합니다.

헌향진언

『옴 바아라 도비야 흠』 (3번)

칠정례
七頂禮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至心歸命禮 三界導師 四生慈父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是我本師 釋迦牟尼佛

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
至心歸命禮 十方三世 帝網刹海
상주일체 불타야중
常住一切 佛陀耶衆

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
至心歸命禮 十方三世 帝網刹海
상주일체 달마야중
常住一切 達摩耶衆

칠정례

지극한 마음으로,
온~세계 스승이며 모든중생 아버지신
석가모니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세계 항상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세계 항상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대지문수사리보살
大智文殊舍利菩薩

대행보현보살
大行普賢菩薩

대비관세음보살
大悲觀世音菩薩

대원본존 지장보살마하살
大願本尊地藏菩薩摩訶薩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영산당시 수불부촉
靈山當時受佛咐囑

십대제자 십육성 오백성
十大弟子十六聖五百聖

독수성 내지 천이백
獨修聖乃至千二百

제대아라한 무량자비성중
諸大阿羅漢無量慈悲聖衆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십대제자 십육성
오백성 독수성 내지 천이백 아라한께
절~하옵니다.

지심귀명례 서건동진 급아해동
 至心歸命禮 西乾東震 及我海東
 역대전등 제대조사
 歷代傳燈 諸大祖師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天下宗師 一切微塵數
 제대선지식
 諸大善知識

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
 至心歸命禮 十方三世 帝網刹海
 상주일체 승가야중
 常住一切 僧伽耶衆

유원 무진삼보 대자대비
 唯願無盡三寶 大慈大悲

수아정례 명훈가피력
 受我頂禮 冥熏加被力

원공법계제중생 자타일시성불도
 願共法界諸衆生 自他一時成佛道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전한 역대조사
 천하종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세계 항상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다함없는 삼보시여,
 저희예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계중생 모두함께 성불~하여지이다.

행선축원

行 禪 祝 願

조석향등헌불전

朝夕香燈獻佛前

귀의삼보예금선

歸依三寶禮金仙

국제안녕병혁소

國界安寧兵革消

천하태평법륜전

天下太平法輪轉

원아세세생생처

願我世世生生處

상어반야불퇴전

常於般若不退轉

여피본사용맹지

如彼本師勇猛智

여피사나대각과

如彼舍那大覺果

여피문수대지혜

如彼文殊大智慧

여피보현광대행

如彼普賢廣大行

여피지장무변신

如彼地藏無邊身

여피관음삼이응

如彼觀音卅二應

행선축원

아침저녁 향과등불 부처님전 올리우고
 삼보전에 귀의하여 공경예배 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재앙 소멸되며
 온~세계 평화롭고 부처님법 이뤄지이다.

저희들이 이와같이 세세생생 날적마다
 반야지혜 좋은인연 물리나지 아니하고
 우리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세우고
 비로자나 여래같이 큰깨달음 이룬뒤에
 문수사리 보살처럼 깊고밝은 큰지혜와
 보현보살 본을받아 크고넓은 행원으로
 넓고넓어 끝이없는 지장보살 몸과같이

시방세계무불현 보령중생입무위
十方世界無不現 普令衆生入無爲

문아명자면삼도 견아형자득해탈
聞我名者免三途 見我形者得解脫

여시교화항사겁 필경무불급중생
如是教化恒沙劫 畢竟無佛及衆生

시회대중각복위 선망부모왕극락
時會大衆各伏爲 先亡父母往極樂

현존사친수여해 법계애혼이고취
現存師親壽如海 法界哀魂離苦趣

산문숙정절비우 사내재앙영소멸
山門肅靜絕悲憂 寺內災殃永消滅

토지천룡호삼보 산신국사보정상
土地天龍護三寶 山神局司補禳祥

준동함령등피안 세세상행보살도
蠢動含靈登彼岸 世世常行菩薩道

천수천안 관음보살 삼십이응 몸을나뉘
시방삼세 넓은세계 두루돌아 다니면서
모든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할제
내이름을 듣는이는 삼악도를 벗어나고
내모습을 보는이는 생사번뇌 해탈하며
백천만겁 지나면서 이와같이 교화하여
부처님도 중생들도 모든차별 없어지이다.
시방삼세 불제자들 모든소원 이뤄지고
선망부모 제형숙백 왕생극락 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육친 수명장수 하옵시고
온법계의 애혼고혼 삼도고해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걱정 없어지고
도량내의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천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구경원성살바야

究 竟 圓 成 薩 婆 若

마하반야바라밀

摩 訶 般 若 波 羅 蜜

나무석가모니불

南 無 釋 迦 牟 尼 佛

나무석가모니불

南 無 釋 迦 牟 尼 佛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南 無 是 我 本 師 釋 迦 牟 尼 佛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중생 모두함께 저언덕에 태어나고
세세생생 언제라도 보살도를 행하여서
구경에는 일체지가 원만하게 이뤄지다.
마하반야바라밀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怡山慧然禪師發願文

(운허 스님 번역)

시방삼세 부처님과 팔만사천 가르침과
보살성문 스님네께 지성귀의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성품 등지옴고 무명속에 뛰어들어
나고죽는 물결따라 빛과소리 물이들고
심술긋고 욕심내어 온갖번뇌 쌓았으며
보고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지어
잘못된길 갈팡질팡 생사고해 해매면서
나와남을 집착하고 그른길만 찾아다녀
여러생에 지은업장 크고작은 많은허물
삼보전에 원력빌어 일심참회 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네 살피시어
고통바다 헤어나서 열반언덕 가사이다
이세상에 명과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적마다 좋은국토 밝은스승 만나오며
바른신심 굳게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눈이 총명하고 말과뜻이 진실하며
세상일에 물안들고 맑은행실 닦고닦아
서리같이 엄한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거동으로 모든생명 사랑하며
이내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난 만나잖고 불법인연 구족하며
반야지혜 드러나고 보살마음 견고하여
제불정법 잘배워서 대승진리 깨달은뒤

육바라밀 행을 닦아 이승지겹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천겁만겁 의심끊고
 마군중을 행복받고 삼보를 잇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일 잠깐인들 쉬오리까
 온갖법문 다배워서 모두통달 하옵거든
 복과지혜 함께늘어 무량중생 제도하며
 여섯가지 신통얻고 무생법인 이룬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중생 건지올제
 여러갈래 몸을나뉘 미묘법문 연설하고
 지옥아귀 나쁜곳엔 광명놓고 신통보여
 내모양을 보는이나 내이름을 듣는이는
 보살마음 모두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옥 끓는물은 감로수로 변해지고
 검수도산 날샌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새와 기는짐승 원수맺고 빛진이들
 갓은고통 벗어나서 좋은복락 누려지다
 모진질병 돌적에는 약풀되어 치료하고
 흉년드는 세상에는 쌀이되어 구제하되
 여러중생 이로운일 한가진들 빼오리까
 천겁만겁 내려오던 원수거나 친한이나
 이세상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것없이
 없히었던 애정끊고 삼계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성불 하여지다
 허공끝이 있사온들 이내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時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

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舍利子色不異空空不異色色即是空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空即是色受想行識亦復如是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舍利子是諸法空相不生不滅

불구부정 부증불감

不垢不淨不增不減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是故空中無色無受想行識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무안이비설신의

無眼耳鼻舌身意

무색성향미촉법

無色聲香味觸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無眼界乃至無意識界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無無明亦無無明盡乃至無老死

역무노사진 무고집멸도

亦無老死盡無苦集滅道

무지역무득 이무소득고

無智亦無得以無所得故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菩提薩埵依般若波羅蜜多故

심무가애 무가애고 무유공포

心無罣碍無罣碍故無有恐怖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遠離顛倒夢想究竟涅槃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고

三世諸佛依般若波羅蜜多故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늡고 죽음도 늡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 집멸도도 없으며,

지해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득아낙다라삼막삼보리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고지 반야바라밀다

故知般若波羅蜜多

시대신주 시대명주

是大神呪是大明呪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是無上呪是無等等呪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能除一切苦真實不虛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왈

故說般若波羅蜜多呪即說呪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揭諦揭諦 婆羅揭諦 婆羅僧揭諦 菩提

사바하』 (3번)

娑婆訶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3번)

3장 불공의례

상단불공



- 1. 보례진언 54
- 2. 천수경 54
- 3. 삼보통칭 84
- 4. 석가모니 정근 112
- 5. 관음정근 114
- 6. 지장정근 118
- 7. 중단퇴공 120
- 8. 화엄성증 정근 128
- 9. 화엄경 약찬게 130
- 10. 신중헌공 142

상단불공
上壇佛供

보례진언
普禮真言

아금일신중 즉현무진신
我今一身中 卽現無盡身

변재삼보전 일일무수례
遍在三寶前 一一無數禮

『옴 바아라 믹』 (3번)

천수경
千手經

정구업진언
淨口業真言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3번)

상단불공

보례진언

저희 이제 한 몸에서 다함없는 몸을 내어
온~세계 두루 계신
삼보님께 절~하옵니다.

『옴 바아라 믹』 (3번)

천수경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3번)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五方内外安慰諸神真言

『나무 사만다 못다남 음 도로 도로
지미 사바하』 (3번)

개경계

開經偈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
無上甚深微妙法 百千萬劫難遭遇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여래진실의
我今聞見得受持 願解如來真實意

개법장진언

開法藏真言

『옴 아라남 아라다』 (3번)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음 도로 도로
지미 사바하』 (3번)

개경계

위~없이 심히깊은 미묘한법을
백천만겁 지난들~ 어찌만나리
제가이제 보고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뜻 알아지이다.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3번)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千手千眼 觀自在菩薩 廣大圓滿

무애대비심대다라니 계청
無礙大悲心大陀羅尼 啓請

계수관음대비주 원력홍심상호신
稽首觀音大悲主 願力弘深相好身

천비장엄보호지 천안광명변관조
千臂莊嚴普護持 千眼光明遍觀照

진실어증선밀어 무위심내기비심
眞實語中宣密語 無爲心內起悲心

속령만족제희구 영사멸제제죄업
速令滿足諸希求 永使滅除諸罪業

천룡중성동자호 백천삼매돈훈수
天龍衆聖同慈護 百千三昧頓熏修

수지신시광명당 수지심시신통장
受持身是光明幢 受持心是神通藏

세척진로원제해 초증보리방편문
洗滌塵勞願濟海 超證菩提方便門

천수천안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의 다라니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크신원력 원만상호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비취 두루살피네.

진실하온 말씀중에 다라니펴고
함없는 마음중에 자비심내어
온갖소원 지체없이 이뤄주시고
모든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닌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마음 신통장이라

아금칭송서귀의 我今稱誦誓歸依	소원종심실원만 所願從心悉圓滿
나무대비관세음 南無大悲觀世音	원아속지일체법 願我速知一切法
나무대비관세음 南無大悲觀世音	원아조득지혜안 願我早得智慧眼
나무대비관세음 南無大悲觀世音	원아속도일체중 願我速度一切衆
나무대비관세음 南無大悲觀世音	원아조득선방편 願我早得善方便
나무대비관세음 南無大悲觀世音	원아속승반야선 願我速乘般若船
나무대비관세음 南無大悲觀世音	원아조득월고해 願我早得越苦海
나무대비관세음 南無大悲觀世音	원아속득계정도 願我速得戒定道
나무대비관세음 南無大悲觀世音	원아조등원적산 願我早登圓寂山
나무대비관세음 南無大悲觀世音	원아속회무위사 願我速會無爲舍

모든번뇌 씻어내고 고해를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되오며
 제가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소원 마음따라 이뤄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속히 알아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눈 어서어서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중생 어서속히 건네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방편 어서어서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배 어서속히 올라지이다.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동법성신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同法性身

아약향도산 도산자취절

我若向刀山 刀山自摧折

아약향화탕 화탕자소멸

我若向火湯 火湯自消滅

아약향지옥 지옥자고갈

我若向地獄 地獄自枯渴

아약향아귀 아귀자포만

我若向餓鬼 餓鬼自飽滿

아약향수라 악심자조복

我若向修羅 惡心自調伏

아약향축생 자득대지혜

我若向畜生 自得大智慧

나무관세음보살마하살

南無觀世音菩薩摩訶薩

나무대세지보살마하살

南無大勢至菩薩摩訶薩

나무천수보살마하살

南無千手菩薩摩訶薩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바다 어서어서 건너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계정해를 어서속히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언덕 어서어서 올라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무위집에 어서속히 들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진리의몸 어서어서 이뤄지이다.

칼산지옥 제가가면 칼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세계 제가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나무여의륜보살마하살

南無如意輪菩薩摩訶薩

나무대륜보살마하살

南無大輪菩薩摩訶薩

나무관자재보살마하살

南無觀自在菩薩摩訶薩

나무정취보살마하살

南無正趣菩薩摩訶薩

나무만월보살마하살

南無滿月菩薩摩訶薩

나무수월보살마하살

南無水月菩薩摩訶薩

나무군다리보살마하살

南無軍荼利菩薩摩訶薩

나무십일면보살마하살

南無十一面菩薩摩訶薩

나무제대보살마하살

南無諸大菩薩摩訶薩

나무본사아미타불 (3번)

南無本師阿彌陀佛

수라세계 제가가면 악한마음 선해지고
축생세계 제가가면 지혜절로 얻어지이다.

나무 관세음보살마하살

나무 대세지보살마하살

나무 천수보살마하살

나무 여의륜보살마하살

나무 대륜보살마하살

나무 관자재보살마하살

나무 정취보살마하살

나무 만월보살마하살

나무 수월보살마하살

나무 군다리보살마하살

나무 십일면보살마하살

나무 제대보살마하살

『나무 본사아미타불』 (3번)

신묘장구대다라니
神妙章句大陀羅尼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 나막알야 바로
기제 새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
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음 살바 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막 까리다바
이맘알야 바로기제 새바라 다바 니라간타
나막하리나야 마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수반 아예염 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감 다나타 음 아로계 아로가 마지
로가 지가란제 헤헤하례 마하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
미연제 다라다라 다린 나례 새바라 자라
자라 마라미마라 아마라 물제예헤헤

로계새바라 라아 미사미 나사야 나베사
미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례 바나마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못자
모다야 모다야 매다리야 니라간타 가마사
날사남 바라하라니야 마낙 사바하 싯다야
사바하 마하싯다야 사바하 싯다유예
새바라야 사바하 니라간타야 사바하
바라하 목카싱하 목카야 사바하 바나마
하따야 사바하 자카라 욱다야 사바하 상카
섭나네 모다나야 사바하 마하라 구타다
라야 사바하 바마사간타 이사시체다
가릿나 이나야 사바하 마가라 잘마니바
사나야 사바하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
나막알야 바로기제 새바라야 사바하

사방찬 (四方讚)

일쇄동방결도량 이쇄남방득청량
 一灑東方潔道場 二灑南方得清涼
 삼쇄서방구정토 사쇄북방영안강
 三灑西方俱淨土 四灑北方永安康

도량찬 (道場讚)

도량청정무하예 삼보천룡강차지
 道場清淨無瑕穢 三寶天龍降此地
 아금지송묘진언 원사자비밀가호
 我今持誦妙真言 願賜慈悲密加護

참회계 (懺悔偈)

아석소조제악업 개유무시탐진치
 我昔所造諸惡業 皆由無始貪瞋痴
 종신구의지소생 일체아금개참회
 從身口意之所生 一切我今皆懺悔

사방찬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청량언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도량찬

온도량이 청정하여 티끌없으니
 삼보천룡 이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이제 묘한진언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호하소서.

참회계

지난세월 제가지은 모든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이제 모든죄업 참회합니다.

참제업장십이존불 (懺除業障十二尊佛)

나무참제업장보승장불
南無懺除業障寶勝藏佛

보광왕화염조불
寶光王火焰照佛

일체향화자재력왕불
一切香華自在力王佛

백억항하사결정불
百億恒河沙決定佛

진위덕불
振威德佛

금강견강소복괴산불
金剛堅強消伏壞散佛

보광월전묘음존왕불
普光月殿妙音尊王佛

환희장마니보적불
歡喜藏摩尼寶積佛

무진향승왕불
無盡香勝王佛

참제업장십이존불

나무참제업장보승장불

보광왕화염조불

일체향화자재력왕불

백억항하사결정불

진위덕불

금강견강소복괴산불

보광월전묘음존왕불

환희장마니보적불

무진향승왕불

사자월불

獅子月佛

환희장엄주왕불

歡喜莊嚴珠王佛

제보당마니승광불

帝寶幢摩尼勝光佛

십악참회 (十惡懺悔)

살생중죄금일참회

殺生重罪今日懺悔

투도중죄금일참회

偷盜重罪今日懺悔

사음중죄금일참회

邪淫重罪今日懺悔

망어중죄금일참회

妄語重罪今日懺悔

기어중죄금일참회

綺語重罪今日懺悔

양설중죄금일참회

兩舌重罪今日懺悔

악구중죄금일참회

惡口重罪今日懺悔

탐애중죄금일참회

貪愛重罪今日懺悔

진에중죄금일참회

瞋恚重罪今日懺悔

치암중죄금일참회

癡暗重罪今日懺悔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제

百劫積集罪 一念頓蕩除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마니승광불

십악참회

살생으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악한말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如火焚枯草 滅盡無有餘

죄무자성중심기

罪無自性從心起

심약멸시죄역망

心若滅時罪亦亡

죄망심멸양구공

罪亡心滅兩俱空

시즉명위진참회

是卽名爲眞懺悔

참회진언

懺悔眞言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3번)

어리석어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오랜세월 쌓인죄업 한생각에 없어지니
마른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자성 본래없어 마음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함께 없어지네.
모든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라네

참회진언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3번)

준제찬 (准提讚)

준제공덕취 적정심상송
准提功德聚 寂靜心常誦

일체제대난 무능침시인
一切諸大難 無能侵是人

천상급인간 수복여불등
天上及人間 受福如佛等

우차여의주 정획무등등
遇此如意珠 定獲無等等

『나무 칠구지불모대준제보살』 (3번)
南無七俱胝佛母大准提菩薩

정법계진언
淨法界眞言

『옴 람』 (3번)

호신진언
護身眞言

『옴 치림』 (3번)

준제찬

준제주는 모든공덕 보고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외우면
이~세상 온갖재난 침범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받으니
이와같은 여의주를 지니는이는
결정코~ 최상의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불모대준제보살』 (3번)

정법계진언

『옴 람』 (3번)

호신진언

『옴 치림』 (3번)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진언
觀世音菩薩 本心微妙 六字大明王眞言

『옴 마니 반메 흠』 (3번)

준제진언
准提眞言

나무 사다남 삼막삼뭇다 구치남 다나타

『옴 자례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 (3번)

준제발원 (准提發願)

아금지송대준제 즉발보리광대원
我今持誦大准提 卽發菩提廣大願

원아정혜속원명 원아공덕개성취
願我定慧速圓明 願我功德皆成就

원아승복변장엄 원공중생성불도
願我勝福遍莊嚴 願共衆生成佛道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진언

『옴 마니 반메 흠』 (3번)

준제진언

나무 사다남 삼막삼뭇다 구치남 다나타

『옴 자례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 (3번)

준제발원

제가이제 준제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발하오며 큰원세우고
선정지혜 어서속히 밝아지오며
모든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중생 깨달음을 이뤄지이다.

여래십대발원문

如來十大發願文

원아영리삼악도 원아속단탐진치
願我永離三惡道 願我速斷貪瞋痴

원아상문불법승 원아근수계정혜
願我常聞佛法僧 願我勤修戒定慧

원아항수제불학 원아불퇴보리심
願我恒隨諸佛學 願我不退菩提心

원아결정생안양 원아속견아미타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원아분신변진찰 원아광도제중생
願我分身遍塵刹 願我廣度諸衆生

발사홍서원

發四弘誓願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衆生無邊誓願度 煩惱無盡誓願斷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法門無量誓願學 佛道無上誓願成

여래십대발원문

원하오니	삼악도를	길이여의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름	항상듣고서
계정혜~	삼학도를	힘써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옵고
온~세계	모든국토	몸을나투어
모든중생	빠짐없이	건져지이다.

발사홍서원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끊없는~	번뇌를~	끊으오리다.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自性衆生誓願度 自性煩惱誓願斷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성
自性法門誓願學 自性佛道誓願成

발원이 귀명례삼보
發願已歸命禮三寶

『나무상주시방불
南無常住十方佛

나무상주시방법
南無常住十方法

나무상주시방승』(3번)
南無常住十方僧

한없는~ 법문을~ 배우오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오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으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오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오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삼보통청

三寶通請

거불 (舉佛)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南無 佛 陀 部 衆 光 臨 法 會

나무 달마부중 광림법회
南無 達 摩 部 衆 光 臨 法 會

나무 승가부중 광림법회
南無 僧 伽 部 衆 光 臨 法 會

보소청진언
普 召 請 眞 言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
아다야』 (3번)

삼보통청

거불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큰절)

나무 달마부중 광림법회 (큰절)

나무 승가부중 광림법회 (큰절)

보소청진언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
아다야』 (3번)

유치 (由致)

앙유 삼보대성자 종 진정계 흥 대비운
仰惟 三寶大聖者 從 眞淨界 興 大悲雲

비신현신 포 신운어삼천세계
非身現身 布身雲於三千世界

무법설법 쇠 법우어팔만진로
無法說法 灑法雨於八萬塵勞

개 종종방편지문 도 망망사계지중
開種種方便之門 導茫茫沙界之衆

유구개수 여공곡지전성
有求皆遂 如空谷之傳聲

무원부종 약징담지인월
無願不從 若澄潭之印月

시이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섬부주
是以 娑婆世界 此四天下 南瞻部洲

동양 대한민국
東洋 大韓民國

모처 모산 모사 수월도량
某處 某山 某寺 水月道場

유치

우리러 생각하옵건대

삼보자존께서는 진여의 청정법계에서
자비의 구름으로 피어나 몸 아니건만

구름으로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고, 설할
법이 없건만 법의 비로 팔만사천 번뇌를
씻으시며, 갖가지 방편 문을 열어 끝없는
고해의 중생을 이끄시니, 빈 골짜기의
메아리처럼 구하는 것 모두 얻게 하시고,
맑은 연못 달그림자처럼 원하는 것 모두
이루어 주시옵니다.

그러하옵기에 오늘 ○○법회 사시공양을
올리는 법석에 동참하신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사부대중 불자들이 이공덕
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산 ○○사 청정도량에서

금차 지극지정성 헌공발원재자

今此至極之精誠 獻供發願齋者

모처 거주

某處居住

청신사 모생 모인 보체

淸信士 某生 某人 保體

청신녀 모생 모인 보체

淸信女 某生 某人 保體

이 금월금일 건설법연 정찬공양

以今月今日 虔設法筵 淨饌供養

제망중중 무진삼보자존 훈근작법

帝網重重 無盡三寶慈尊 薰勸作法

앙기묘원자 우복이

仰祈妙援者 右伏以

설 명향이례청 정 옥립이수재

蒸茗香以禮請 呈玉粒而修齋

재체수미 건성가민 기회자감

齋體雖微 虔誠可愍 冀回慈鑑

곡조미성 근병일심 선진간청

曲照微誠 謹秉一心 先陳懇請

금월 금일

삼가법연을 열어 다함없는 삼보자존께

조출한 공양구를 올리오며,

정성으로 법요를 거행하며

신묘한 가피를 바라옵는 저희들은

삼가 싱그러운 향을 사르고

예를 다해 청하오며,

백옥같은 흰쌀을 올려 재를 차렸사온데

공양물은 미미하오나 정성은 간절하오니

자비거울 돌리시어

작은정성을 굽어비취 주옵소서.

삼가 일심으로 먼저 청함을 펼치옵니다.

나무 일심봉청 이대자비 이위체고
南 無 一 心 奉 請 以 大 慈 悲 而 爲 體 故

구호중생 이위자량 어제병고
救 護 衆 生 以 爲 資 糧 於 諸 病 苦

위작양의 어실도자 시기정로
爲 作 良 醫 於 失 道 者 示 其 正 路

어암야중 위작광명 어빈궁자
於 闇 夜 中 爲 作 光 明 於 貧 窮 者

영득복장 평등요익 일체중생
永 得 伏 藏 平 等 饒 益 一 切 衆 生

청정법신비로자나불
清 淨 法 身 毘 盧 遮 那 佛

원만보신노사나불
圓 滿 報 身 盧 舍 那 佛

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
千 百 億 化 身 釋 迦 牟 尼 佛

서방교주아미타불 당래교주미륵존불
西 方 教 主 阿 彌 陀 佛 當 來 教 主 彌 勒 尊 佛

나무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대자비로 본체를삼고 중생을 구호하심을
자산과 양식으로 삼으시며,
병들어 앓는이에겐 좋은의사가 되옵시고,
길잃은 자에게는 바른길을 일러주시고,
어둠속을 헤매는 자에겐 빛이 되시고,
가난한 자에겐 보배창고 얻게하며,
모든중생 두루두루 넉넉하게 하옵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부처님과
서방교주 아미타부처님, 장차오실 용화
교주 미륵부처님 등, 시방세계 항상계신
진여 그대로의 불보님과 일승법의 원만한
교법인 대화엄경, 대승의 참가르침인

시방상주진여불보 일승원교대화엄경
十方常住眞如佛寶 一乘圓教大華嚴經

대승실교묘법화경 삼처전심격외선전
大乘實教妙法華經 三處傳心格外禪詮

시방상주 심심법보 대지문수보살
十方常住 甚深法寶 大智文殊菩薩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大行普賢菩薩 大悲觀世音菩薩

대원지장보살 전불심등 가섭존자
大願地藏菩薩 傳佛心燈 迦葉尊者

유통교해 아난존자 시방상주
流通教海 阿難尊者 十方常住

청정승보 여시삼보 무량무변
清淨僧寶 如是三寶 無量無邊

일일주변 일일진찰 유원 자비
一一周徧 一一塵刹 唯願慈悲

연민유정 강림도량 수차공양
憐愍有情 降臨道場 受此供養

묘법연화경, 세곳에서 전하신 마음소리
언어문자 여원선법 등 시방에 항상계신
매우깊은 법보님과 대지문수보살님, 대행
보현보살님, 대비관세음보살님, 대원
지장보살님, 부처님의 마음등불 전해받은
가섭존자님, 교법을 유통시킨 아난존자님
등 시방에 항상계신 청정승보님,
이와같이 한량없는 티끌세계에 두루하신
삼보님이시여,
‘자비로써’ 중생을 어여뻐 여기사
이도량에 강림하여 공양을 받으옵소서.

『향화청』 (3번)

香花請

가영 (歌詠)

불신보변시방중 삼세여래일체동
佛身普遍十方中 三世如來一體同

광대원운항부진 왕양각해묘난궁
廣大願雲恒不盡 汪洋覺海渺難窮

고아일심귀명정례
故我一心歸命頂禮

헌좌진언

獻座眞言

묘보리좌승장엄 제불좌이성정각
妙菩提座勝莊嚴 諸佛坐已成正覺

아금헌좌역여시 자타일시성불도
我今獻座亦如是 自他一時成佛道

『옴 바아라 미나야 사바하』 (3번)

향화청

향과 꽃으로 청하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가영

부처님몸 시방법계 충만하시니
삼세여래 부처님도 이와같아서
넓고크신 원력구름 다함이없고
넓고넓은 진리바다 끝이없어라.
저희이제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헌좌진언

훌륭하게 장엄하온 보리좌로세
삼세제불 앉으셔서 깨달으셨네
지금드린 이자리도 그와같으니
모두함께 성불하게 되어지이다.

『옴 바아라 미나야 사바하』 (3번)

정법계진언

淨法界眞言

『음 람』 (7번, 21번)

공양계(供養偈)

공양시방조어사 연양청정미묘법
供養十方調御士 演揚清淨微妙法

삼승사과해탈승
三乘四果解脫僧

원수애납수
願垂哀納受

원수애납수
願垂哀納受

원수자비에납수
願垂慈悲哀納受

정법계진언

『음 람』 (7번, 21번)

공양계

시방삼세 항상계신 부처님과
청정진리 펴내시는 미묘법과
삼승사과 해탈하신 승보님께 공양하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큰절)
자비로 받으소서 (큰절)
대자비로 받으옵소서. (큰절)

진언권공 (眞言勸供)

향수나열 재자건성

香 羞 羅 列 齋 者 虔 誠

욕구공양지주원 수장가지지변화

欲 求 供 養 之 周 圓 須 仗 加 持 之 變 化

앙유삼보 특사가지

仰 惟 三 寶 特 賜 加 持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승』(3번)

南 無 十 方 佛 南 無 十 方 法 南 無 十 方 僧

무량위덕 자재광명승묘력 변식진언

無 量 威 德 自 在 光 明 勝 妙 力 變 食 眞 言

『나막 살바다타 아다 바로기제 옴

삼바라 삼바라 흠』(3번)

진언권공

향기로운 공양물은

재자들의 정성이오니

원만한 공양이 이뤄지려면

가지력에 의지해야 변화되오니

삼보시여, 특별가지를 내리옵소서.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승』(3번)

무량위덕 자재광명승묘력 변식진언

『나막 살바다타 아다 바로기제 옴

삼바라 삼바라 흠』(3번)

시감로수진언
施甘露水眞言

『나무 소로바야 다타아다야 다냐타
옴 소로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사바하』 (3번)

일자수륜관진언
一字水輪觀眞言

『옴 밤 밤 밤밤』 (3번)

유해진언
乳海眞言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밤』 (3번)

시감로수진언

『나무 소로바야 다타아다야 다냐타
옴 소로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사바하』 (3번)

일자수륜관진언

『옴 밤 밤 밤밤』 (3번)

유해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밤』 (3번)

예공 (禮供)

지심정례공양 삼계도사 사생자부
至心頂禮供養 三界導師 四生慈父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是我本師 釋迦牟尼佛

지심정례공양 시방삼세 제망찰해
至心頂禮供養 十方三世 帝網剎海

상주일체 불타야중
常住一切 佛陀耶衆

지심정례공양 시방삼세 제망찰해
至心頂禮供養 十方三世 帝網剎海

상주일체 달마야중
常住一切 達摩耶衆

예공

지극한 마음으로,
온~세계 스승이며 모든중생 어버이신
석가모니부처님께
공양~올리웁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세계 항상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올리웁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세계 항상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공양~올리웁니다.

지심정례공양 대지문수사리보살
至心頂禮供養 大智文殊舍利菩薩

대행보현보살
大行普賢菩薩

대비관세음보살
大悲觀世音菩薩

대원본존 지장보살
大願本尊地藏菩薩

마하살
摩訶薩

지심정례공양 영산당시 수불부촉
至心頂禮供養 靈山當時受佛咐囑

십대제자 십육성
十大弟子十六聖

오백성 독수성 내지
五百聖獨修聖乃至

천이백 제대아라한
千二百諸大阿羅漢

무량자비성중
無量慈悲聖衆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공양~올리웁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십대제자 십육성
오백성 독수성 내지 천이백 아라한께
공양~올리웁니다.

지심정례공양 서건동진 급아해동
至心頂禮供養 西乾東晉 及我海東

역대전등 제대조사
歷代傳燈 諸大祖師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天下宗師 一切微塵數

제대선지식
諸大善知識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전한 역대조사
천하종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공양~올리옵니다.

지심정례공양 시방삼세 제망찰해
至心頂禮供養 十方三世 帝網刹海

상주일체 승가야중
常住一切 僧伽耶衆

지극한 마음으로,
온~세계 항상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공양~올리옵니다.

유원 무진삼보 대자대비
唯願無盡三寶 大慈大悲

수차공양 명훈가피력
受此供養 冥熏加被力

원공법계제중생 자타일시성불도
願共法界諸衆生 自他一時成佛道

다함없는 삼보시여,
저희공양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계중생 모두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사대진언 (四大眞言)

보공양진언
普 供 養 眞 言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흠』 (3번)

보회향진언
普 回 向 眞 言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하
자거라바 흠』 (3번)

원성취진언
願 成 就 眞 言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흠』 (3번)

보결진언
補 闕 眞 言

『옴 호로호로 사야모케 사바하』 (3번)

사대진언

보공양진언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흠』 (3번)

보회향진언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하
자거라바 흠』 (3번)

원성취진언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흠』 (3번)

보결진언

『옴 호로호로 사야모케 사바하』 (3번)

탄백 (嘆白)

찰진심념가수지

刹塵心念可數知

대해중수가음진

大海中水可飲盡

허공가량풍가계

虛空可量風可繫

무능진설불공덕

無能盡說佛功德

탄백

세상일체 모두세고 온갖생각 모두알고
넓은바다 가득한물 다마실수 있다하며
텅빈허공 크기재고 부는바람 다묶어도
부처님의 크신공덕 말로하기 어려우네

석가모니 정근

釋迦牟尼 精勤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南無三界導師 四生慈父 是我本師

「석가모니불」…….
釋迦牟尼佛

석가여래종자심진언
釋迦如來種子心眞言

『나무 사만다 못다남 박』 (3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역무비
天上天下無如佛 十方世界亦無比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여불자
世間所有我盡見 一切無有如佛者

석가모니 정근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석가여래종자심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박』 (3번)

부처님과 같은이는 천상천하 볼수없고
부처님에 비할사람 시방세계 아주없네
인간세상 온갖것을 빠짐없이 보았지만
부처님과 같은신분 어디에도 전혀없네

관음정근
觀音精勤

나무 보문시현 원력홍심 대자대비
南無普門示現願力弘深大慈大悲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救苦救難 觀世音菩薩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
觀世音菩薩 滅業障眞言

『옴 아로능계 사바하』 (3번)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具足神通力 廣修智方便

시방제국토 무찰불현신
十方諸國土 無刹不現身

관음정근

나무 보문시현 원력홍심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

『옴 아로능계 사바하』 (3번)

신통한힘 구족하고 지혜방편 널리댈어
시방세계 모든곳에 빠짐없이 나투시네.

원멸 사생육도 법계유정

願滅四生六道法界有情

다겁생래제업장 아금참회계수례

多劫生來諸業障我今懺悔稽首禮

원제죄장실소제 세세상행보살도

願諸罪障悉消除世世常行菩薩道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중생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當生極樂國同見無量壽皆共成佛道

사생육도 법계중생 여러겁 동안
지은업장 모두 소멸해 주시기를
제가지금 참회하고
머리숙여 절하오니
죄업장이 모두 소멸되고
태어나는 세상마다
보살도를 행하여지이다.

이공덕이 모든곳에 두루퍼져
우리모두 극락국토 태어나서
아미타불 친견하고 모두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지장정근

地藏精勤

나무 남방화주 대원본존
南無南方化主大願本尊

『지장보살』…….
地藏菩薩

지장보살 멸정업진언
地藏菩薩滅定業眞言

『옴 바라 마니다니 사바하』 (3번)

지장대성위신력 항하사겁설난진
地藏大聖威神力恒河沙劫說難盡

견문침례일념간 이익인천무량사
見聞瞻禮一念間利益人天無量事

지장정근

나무 남방화주 대원본존
『지장보살』…….

지장보살 멸정업진언

『옴 바라 마니다니 사바하』 (3번)

지장보살 대성인의 크신위신력
항하사겁 말하여도 다하지못해
보고듣고 찰나동안 예배하여도
인간천상 모두함께 이익얻으리.

중단퇴공

中壇推供

진공진언
眞供眞言

『옴 반자 사바하』 (3번)

공양계 (供養偈)

이차청정향운공 봉헌옹호성중전
以此清淨香雲供 奉獻擁護聖衆前

감찰재자건간심
鑑察齋者虔懇心

원수애납수
願垂哀納受

원수애납수
願垂哀納受

원수자비에납수
願垂慈悲哀納受

중단퇴공

진공진언

『옴 반자 사바하』 (3번)

공양계

청정하고 향기로운 공양을
옹호성중님께 올리오니
재자들의 간절한 마음 살피사

자비로 받으소서. (큰절)

자비로 받으소서. (큰절)

대자비로 받으옵소서. (큰절)

지심정례공양 진법계 허공계
至心頂禮供養 盡法界虛空界

화엄회상 욕색제천중
華嚴會上欲色諸天衆

지심정례공양 진법계 허공계
至心頂禮供養 盡法界虛空界

화엄회상 팔부사왕중
華嚴會上八部四王衆

지심정례공양 진법계 허공계
至心頂禮供養 盡法界虛空界

화엄회상 호법선신중
華嚴會上護法善神衆

유원 신중자비 옹호도량
唯願神衆慈悲擁護道場

실개수공발보리 시작불사도중생
悉皆受供發菩提施作佛事度衆生

지극한 마음으로,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
욕색 제천님께 공양~올리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
팔부사왕님께 공양~올리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
호법선신님께 공양~올리옵니다.

신중님이시여 자비로 도량을 옹호하소서
공양을 받으시고 보리심내어
불사를 이루시고 중생을 건지오소서

보공양진언

普供養眞言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흠』 (3번)

- 화엄경 약찬게 (130쪽 참조)

華嚴經略纂偈

- 반야심경 (46쪽 참조)

般若心經

불설소재길상다라니

佛說消災吉祥陀羅尼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
사 사나남 다냐타 옴 카카 카혜 카혜
흠 흠 아바라 아바라 바라아바라
바라아바라 지따지따 지리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하』 (3번)

보공양진언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흠』 (3번)

- 화엄경 약찬게 (130쪽 참조)

- 반야심경 (46쪽 참조)

불설소재길상다라니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
사 사나남 다냐타 옴 카카 카혜 카혜
흠 흠 아바라 아바라 바라아바라
바라아바라 지따지따 지리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하』 (3번)

원성취진언
願成就眞言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흠』(3번)

보결진언
補闕眞言

『옴 호로호로 사야모케 사바하』(3번)

보회향진언
普回向眞言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하
자거라바 흠』(3번)

원성취진언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흠』(3번)

보결진언

『옴 호로호로 사야모케 사바하』(3번)

보회향진언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하
자거라바 흠』(3번)

화엄성중 정근

華嚴聖衆精勤

나무 불법문중 불리수호 옹호도량

南無佛法門中不離守護擁護道場

「화엄성중」…….

華嚴聖衆

화엄성중혜감명 사주인사일념지

華嚴聖衆慧鑑明四洲人事一念知

애민중생여적자 시고아금공경례

哀愍衆生如赤子是故我今恭敬禮

화엄성중 정근

나무 불법문중 불리수호 옹호도량

「화엄성중」…….

화엄성중 큰지혜로 밝게살펴

온~세계 모든일을 한순간에 다아시고

모든중생 자식처럼 어여뻐~ 여기시니,

저희이제 공경히~ 절하옵니다.

화엄경 약찬게

華嚴經略纂偈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게

大方廣佛華嚴經 龍樹菩薩略纂偈

나무화장세계해 비로자나진법신

南無華藏世界海 毘盧遮那眞法身

현재설법노사나 석가모니제여래

現在說法盧舍那 釋迦牟尼諸如來

과거현재미래세 시방일체제대성

過去現在未來世 十方一切諸大聖

근본화엄전법륜 해인삼매세력고

根本華嚴轉法輪 海印三昧勢力故

보현보살제대중 집금강신신중신

普賢菩薩諸大衆 執金剛神身衆神

족행신중도량신 주성신중주지신

足行神衆道場神 主城神衆主地神

주산신중주림신 주약신중주가신

主山神衆主林神 主藥神衆主稼神

화엄경 약찬게

크고넓고 방정하온 부처님의 화엄경을

용수보살 계송으로 간략하게 엮으셨네.

아름다운 연꽃으로 가꾸어진 화장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실하온 법신불과

현재에도 설법하는 노사나불 보신불과

사바세계 교주이신 석가모니 화신불과

과거현재 미래세상 모든여래 모든성자

두손모아 마음모아 지성으로 귀의하니

근본적인 화엄교설 법의바퀴 굴리심은

해인삼매 평화롭고 드넓으신 힘이여라.

보현보살 모든대중 하나하나 열거하면

금강저를 손에드신 집금강신 신중신과

주하신중주해신 主河神衆主海神	주수신중주화신 主水神衆主火神
주풍신중주공신 主風神衆主空神	주방신중주야신 主方神衆主夜神
주주신중아수라 主晝神衆阿修羅	가루라왕긴나라 迦樓羅王緊那羅
마후라가야차왕 摩睺羅伽夜叉王	제대용왕구반다 諸大龍王鳩槃荼
건달바왕월천자 乾闥婆王月天子	일천자중도리천 日天子衆忉利天
야마천왕도솔천 夜摩天王兜率天	화락천왕타화천 化樂天王他化天
대범천왕광음천 大梵天王光音天	변정천왕광과천 遍淨天王廣果天
대자재왕불가설 大自在王不可說	보현문수대보살 普賢文殊大菩薩
법혜공덕금강당 法慧功德金剛幢	금강장급금강혜 金剛藏及金剛慧
광염당급수미당 光焰幢及須彌幢	대덕성문사리자 大德聲聞舍利子

만족하고	실천하는	족행신과	도량신과
성과땅을	주관하는	주성신과	주지신과
산과숲을	주관하는	주산신과	주림신과
약과곡식	주관하는	주약신과	주가신과
하천바다	주관하는	주하신과	주해신과
물과불을	주관하는	주수신과	주화신과
바람허공	주관하는	주풍신과	주공신과
밤과방향	주관하는	주방신과	주야신과
낮을맡은	주주신과	다툼의신	아수라와
용의천적	가루라왕	노래의신	긴나라와
음악의신	마후라가	흡혈귀인	야차왕과
여러모든	용왕들과	정기먹는	구반다와
가무의신	건달바왕	밤밝히는	달의천자
낮밝히는	해의천자	도리천왕	함께하고

급여비구해각등 及與比丘海覺等	우바새장우바이 優婆塞長優婆夷
선재동자동남녀 善財童子童男女	기수무량불가설 其數無量不可說
선재동자선지식 善財童子善知識	문수사리최제일 文殊舍利最第一
덕운해운선주승 德雲海雲善住僧	미가해탈여해당 彌伽解脫與海幢
휴사비목구사선 休舍毘目瞿沙仙	승열바라자행녀 勝熱婆羅慈行女
선견자재주동자 善見自在主童子	구족우바명지사 具足優婆明智士
법보계장여보안 法寶髻長與普眼	무염족왕대광왕 無厭足王大光王
부동우바변행외 不動優婆遍行外	우바라화장자인 優婆羅華長者人
바시라선무상승 婆施羅船無上勝	사자빈신바수밀 獅子嚙伸婆須密
비실지라거사인 毘瑟祇羅居士人	관자재존여정취 觀自在尊與正趣

아마천왕	도솔천왕	화락천왕	타화천왕
대범천왕	광음천왕	변정천왕	광과천왕
색계천의	대자재왕	헤아릴수	없으시네.
보현문수	법혜보살	공덕보살	금강당과
금강장과	금강혜와	광염당과	수미당과
대덕성문	사리자와	해각비구	함께하고
우바새와	우바이와	선재동자	동남동녀
그숫자가	한량없어	말로할수	없음이라.
선재동자	남순할제	선지식이	선셋이라.
처음으로	찾아뵈분	문수사리	보살이요
덕운비구	해운비구	선주비구	미가장자
해탈장자	해당비구	휴사우바	비목구사
승열바라	자행동녀	선견비구	자재동자
구족우바	명지거사	법보계장	보안장자

대천안주주지신 大天安住主地神	바산바연주야신 婆珊婆演主夜神
보덕정광주야신 普德淨光主夜神	희목관찰중생신 喜目觀察衆生神
보구중생묘덕신 普救衆生妙德神	적정음해주야신 寂靜音海主夜神
수호일체주야신 守護一切主夜神	개부수화주야신 開敷樹華主夜神
대원정진력구호 大願精進力救護	묘덕원만구바녀 妙德圓滿瞿婆女
마야부인천주광 摩耶夫人天主光	변우동자중예각 遍友童子衆藝覺
현승견고해탈장 賢勝堅固解脫長	묘월장자무승군 妙月長者無勝軍
최적정바라문자 最寂靜婆羅門者	덕생동자유덕녀 德生童子有德女
미륵보살문수등 彌勒菩薩文殊等	보현보살미진중 普賢菩薩微塵衆
어차법회운집래 於此法會雲集來	상수비로자나불 常隨毘盧遮那佛

무염족왕	대광왕자	부동우바	변행외도
우바라화	장자인과	바시라선	무상승자
사자빈신	비구니와	바수밀과	비슬지라
관자재존	정취보살	대천신과	안주지신
바산바연	주야신과	보덕정광	주야신과
희목관찰	중생야신	보구중생	묘덕야신
적정음해	주야신과	수호일체	주야신과
개부수화	주야신과	대원정진	역구호신
묘덕원만	주야신과	구바여인	마야부인
천주광녀	변우동자	중예각자	현승우바
현승견고	해탈자와	묘월장자	무승군자
최적정의	바라문과	덕생동자	유덕동녀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티끌처럼
많은대중	화엄법회	구름처럼	모여와서

어연화장세계해 於蓮華藏世界海	조화장엄대법륜 造化莊嚴大法輪
시방허공제세계 十方虛空諸世界	역부여시상설법 亦復如是常說法
육육육사급여삼 六六六四及與三	일십일일역부일 一十一一亦復一
세주묘엄여래상 世主妙嚴如來相	보현삼매세계성 普賢三昧世界成
화장세계노사나 華藏世界盧舍那	여래명호사성제 如來名號四聖諦
광명각품문명품 光明覺品問明品	정행현수수미정 淨行賢首須彌頂
수미정상계찬품 須彌頂上偈讚品	보살십주범행품 菩薩十住梵行品
발심공덕명법품 發心功德明法品	불승야마천궁품 佛昇夜摩天宮品
야마천궁계찬품 夜摩天宮偈讚品	십행품여무진장 十行品與無盡藏
불승도솔천궁품 佛昇兜率天宮品	도솔천궁계찬품 兜率天宮偈讚品

비로자나	부처님을	언제든지	모시면서
연꽃으로	가꾸어진	연화장의	세계바다
대법륜을	굴리면서	조화롭게	장엄하고
시방세계	허공세계	한량없는	모든세계
또한다시	이와같이	영원토록	설법하니
여섯여섯	여섯품과	네품다시	세개품과
한품열품	한품과	한품또한	한품이라.
세주묘엄	여래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취
화장세계	비로자나	여래명호	사성제품
광명각품	보살문명	정행품과	현수품과
불승수미	산정품과	수미정상	계찬품과
보살십주	범행품과	발심공덕	명법품과
불승야마	천궁품과	야마천궁	계찬품과
십행품과	무진장품	불승도솔	천궁품과

십회향급십지품 十回向及十地品	십정십통십인품 十定十通十忍品
아승지품여수량 阿僧祇品與壽量	보살주처불부사 菩薩住處佛不思議
여래십신상해품 如來十身相海品	여래수호공덕품 如來隨好功德品
보현행급여래출 普賢行及如來出	이세간품입법계 離世間品入法界
시위십만계송경 是爲十萬偈頌經	삼십구품원만교 三十九品圓滿教
풍송차경신수지 諷頌此經信受持	초발심시변정각 初發心時便正覺
안좌여시국토해 安坐如是國土海	시명비로자나불 是名毘盧遮那佛

도솔천궁	계찬품과	십회향품	십지품과
십정십통	십인품과	아승지품	여래수량
보살주처	부사의법	여래십신	상해품과
여래수호	공덕품과	보현행품	여래출현
이세간품	입법계품	칠처구회	설해지니
이것바로	십만계송	화엄경의	내용이요.
삼십구품	원만하니	일승원교	교설이라.
외우고서	경전말씀	믿으면서	수지하면
처음으로	발심할때	그대로가	정각이니
이와같은	화엄바다	연화세계	안좌하면
그이름이	다름아닌	비로자나	부처로다.

신중헌공

神衆獻供

- 보례진언 (54쪽 참조)
- 천수경 (54쪽 참조)

거불 (舉佛)

나무 금강회상 불보살
南無金剛會上佛菩薩

나무 도리회상 성현중
南無切利會上聖賢衆

나무 옹호회상 영기등중
南無擁護會上靈祇等衆

보소청진언
普召請眞言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
아다야』 (3번)

신중헌공

- 보례진언 (54쪽 참조)
- 천수경 (54쪽 참조)

거불

나무 금강회상 불보살 (큰절)

나무 도리회상 성현중 (큰절)

나무 옹호회상 영기등중 (큰절)

보소청진언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
아다야』 (3번)

유치 (由致)

절이 예적명왕 천부공계 산하지기
切以穢跡明王天部空界山河地祇

옹호성중자 위령막측 신변난사
擁護聖衆者威靈莫測神變難思

위도중생이혹시자용
爲度衆生而或示慈容

위호불법이혹현엄상
爲護佛法而或現嚴相

시권야 불유적화 창실야 즉명본원
施權也 不留跡化 彰實也 卽冥本元

혜감분명 묘용자재
慧鑑分明 妙用自在

상선벌악지무사 소재강복지유직
賞善罰惡之無私 消災降福之有直

범제소원 막불향중
凡諸所願 莫不響從

시이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섬부주
是以娑婆世界 此四天下 南瞻部洲

유치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예적명왕 천부공계 산하지기의 옹호성중
께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위신력과神通
변화로써 중생을 제도하고자 자비로운
얼굴을 보이기도 하고, 정법을 수호하고자
엄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방편을
베꾸시나 자취를 남기지않고, 실상을
나타낼 때에는 그윽히 근본에 부합하십니다.
지혜로운 살핌이 분명하시고, 묘한작용
자재하사 선악의 상벌에 사사로움이 없으
시고,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주심에 끈고
바르니, 메아리가 소리쫓듯 중생들의
모든소원 이뤄주지 못함이 없사옵니다.

동양 대한민국 모도 모군 모산 모사

東洋 大韓民國 某道 某郡 某山 某寺

수월도량

水月道場

모처거주 모인보체

某處居住 某人保體

이차인연공덕 ○○○지원

以此因緣功德 之願

이 금월금일 건설법연 정찬공양

以今月今日 度設法筵 淨饌供養

양헌옹호지성중 부찰간도지범정

仰獻擁護之聖衆 俯察懇禱之凡情

기회영감지소소 곡조미성지편편

冀回靈鑑之昭昭 曲照微誠之片片

근병일심 선진삼청

謹秉一心 先陳三請

그리하옵기에

오늘 ○○법회 사시공양을 올리는 법석에

동참하신 청신사 청신녀 불자들이

이공덕으로 원하는바를 이루고자

○○산 ○○사 수월도량에서

금월금일

법연을 열어

옹호회상의 여러 성증께

조출한 공양구를 올리오니,

어리석은 범부의 정성 굽어살펴

감응하여 주옵소서

삼가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청사 (講詞)

나무일심봉청 수호지주 팔대금강
南無一心奉請 守護持呪 八大金剛

호지사방 사대보살 여래화현 십대명왕
護持四方 四大菩薩 如來化現 十大明王

사바계주 대범천왕 지거세주 제석천왕
娑婆界主 大梵天王 地居世主 帝釋天王

호세안민 사방천왕 일월이궁 양대천자
護世安民 四方天王 日月二宮 兩大天子

이십제천 제대천왕 북두대성 칠원성군
二十諸天 諸大天王 北斗大聖 七元星君

좌보우필 삼태육성 이십팔수 주천열요
左補右弼 三台六星 二十八宿 周天列曜

제성군중 하계당처 토지가람 호계대신
諸星君衆 下界當處 土地伽藍 護戒大神

복덕대신 내호조왕 외호산신 당경하이
福德大神 內護竈王 外護山神 當境遐邇

유현주재 음양조화 부지명위 호법선신
幽現主宰 陰陽造化 不知名位 護法善神

청사

나무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주문지닌 이들을 수호하는 팔대금강님,
사방을 호지하는 사대보살님, 여래의
화현이신 십대명왕님, 사바세계의 주인이신
대범천왕님, 도리천의 주인이신 제석천왕님,
세상과 백성을 편안히 보호하시는
사방천왕님, 일월궁의 양대천자님과
이십천의 제대천왕님, 북두대성 칠원성군님,
좌우에서 보필하는 삼태육성 이십팔수님,
온하늘에 반짝이는 여러성군님,
하계당처의 토지신님, 가람신님,
호계대신님, 복덕대신님, 집안을 지키는
조왕신님, 집밖을 지키는 산신님, 멀고
가까운곳에 음양조화로 자유로이 나투시는

일체 영기등중

一切靈祇等衆

유원 승삼보력 강림도량 수차공양

唯願承三寶力降臨道場受此供養

『향화청』 (3번)

香花請

가영 (歌詠)

옹호성중만허공 도재호광일도중

擁護聖衆滿虛空 都在毫光一道中

신수불어상옹호 봉행경전영류통

信受佛語常擁護 奉行經典永流通

고아일심귀명정례

故我一心歸命頂禮

이름모를 일체의 신령스런 호법선신
영기님이시여 삼보님의 가지력을 받들어
이도량에 강림하여 공양을 받으소서.

향화청

향과 꽃으로 청하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가영

허공세계 가득하신 옹호성중 께옵서는
그모두가 백호광명 빛속에서 머무시네
부처님법 받들어서 언제든지 옹호하며
경전을~ 받들어서 길이길이 유통하네
저희이제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헌좌진언

獻座眞言

아금경설보엄좌 봉헌옹호성중전

我今敬設寶嚴座 奉獻擁護聖衆前

원멸진로망상심 속원해탈보리과

願滅塵勞妄想心 速願解脫菩提果

『옴 가마라 승하 사바하』 (3번)

정법계진언

淨法界眞言

『옴 랍』 (7번, 21번)

헌좌진언

저희이제 경건하게 보배자리 마련하여
신중님께 바치오니 번뇌망상 소멸하여
하루빨리 보리과를 이뤄지게 하옵소서.

『옴 가마라 승하 사바하』 (3번)

정법계진언

『옴 랍』 (7번, 21번)

공양계 (供養偈)

이차청정향운공 봉헌옹호성중전
以此清淨香雲供 奉獻擁護聖衆前

감찰재자건간심
鑑察齋者虔懇心

원수에납수
願垂哀納受

원수에납수
願垂哀納受

원수자비에납수
願垂慈悲哀納受

진언권공 (眞言勸供)

향수나열 재자건성
香羞羅列 齋者虔誠

욕구공양지주원 수장가지지변화
欲求供養之周圓 須仗加持之變化

앙유삼보 특사가지
仰惟三寶 特賜加持

공양계

청정하고 향기로운 공양을
화엄성중님께 올리오니
재자들의 간절한 마음 살피셔서

자비로 받으소서. (큰절)

자비로 받으소서. (큰절)

대자비로 받으옵소서. (큰절)

진언권공

향기로운 공양물은
재자들의 정성이오니
원만한 공양이 이뤄지려면
가지력에 의지해야 변화되오니
삼보시여, 특별가지를 내리옵소서.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승』(3번)

南無十方佛 南無十方法 南無十方僧

무량위덕 자재광명승묘력 변식진언

無量威德 自在光明勝妙力 變食眞言

『나막 살바다타 아다 바로기제 옴

삼바라 삼바라 흠』(3번)

시감로수진언

施甘露水眞言

『나무 소로바야 다타아다야 다냐타

옴 소로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사바하』(3번)

일자수륜관진언

一字水輪觀眞言

『옴 밤 밤 밤밤』(3번)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승』(3번)

무량위덕 자재광명승묘력 변식진언

『나막 살바다타 아다 바로기제 옴

삼바라 삼바라 흠』(3번)

시감로수진언

『나무 소로바야 다타아다야 다냐타

옴 소로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사바하』(3번)

일자수륜관진언

『옴 밤 밤 밤밤』(3번)

유해진언
乳海眞言

『나무 사만다 못다남 음 밤』 (3번)

예공 (禮供)

지심정례공양 진법계 허공계
至心頂禮供養 盡法界虛空界

화엄회상 욕색제천중
華嚴會上欲色諸天衆

지심정례공양 진법계 허공계
至心頂禮供養 盡法界虛空界

화엄회상 팔부사왕중
華嚴會上八部四王衆

지심정례공양 진법계 허공계
至心頂禮供養 盡法界虛空界

화엄회상 호법선신중
華嚴會上護法善神衆

유해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음 밤』 (3번)

예공

지극한 마음으로,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
욕색 제천님께 공양~올리웁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
팔부사왕님께 공양~올리웁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
호법선신님께 공양~올리웁니다.

유원 신중자비 옹호도량

唯願神衆慈悲擁護道場

실개수공발보리 시작불사도중생

悉皆受供發菩提施作佛事度衆生

진언가지 (眞言加持)

상래가지이홀 공양장진

上來加持已訖供養將進

이차향수특신공양

以此香羞特伸供養

향공양 연향공양 등공양 연등공양

香供養 燃香供養 燈供養 燃燈供養

다공양 선다공양 과공양 선과공양

茶供養 仙茶供養 果供養 仙果供養

미공양 향미공양

米供養 香米供養

유원 신장 애강도량 불사자비 수차공양

唯願神將哀降道場不捨慈悲受此供養

신중님이시여 자비로 도량을 옹호하소서

공양을 받으시고 보리심내어

불사를 이루시고 중생을 건지오소서

진언가지

위에서 가지를마친 향긋한 공양구를

특별히 펼쳐 올리고자 하옵니다.

향을살라 공양하오며, 등을켜 공양하오며,

선계의 감로다로 공양하오며,

선계의 과일로 공양하오며,

향기로운 특미로 공양하오니,

신중님이시여,

이도량에 강림하여

자비를 저버리지 마시고

저희공양 받으옵소서.

보공양진언
普 供 養 眞 言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흠』 (3번)

금강심진언
金 剛 心 眞 言

『옴 오륜이 사바하』 (3번)

예적대원만다라니
穢 跡 大 圓 滿 多 羅 尼

계수예적금강부 석가화현금강신
稽 首 穢 跡 金 剛 部 釋 迦 化 現 金 剛 身

삼두노목아여검 팔비개집항마구
三 頭 弩 目 牙 如 劍 八 臂 皆 執 降 魔 具

독사영락요신비 삼매화륜자수신
毒 蛇 瓔 珞 繞 身 臂 三 昧 火 輪 自 隨 身

천마외도급망량 문설신주개포주
天 魔 外 道 及 魍 魎 聞 說 神 呪 皆 怖 走

보공양진언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흠』 (3번)

금강심진언

『옴 오륜이 사바하』 (3번)

예적대원만다라니

석가모니 화현이신 예적금강님께 절하옵니다.

세머리에 부릅뜬눈, 칼같은 송곳니,

여덟팔엔 항마의 법구잡고,

독사로된 영락으로 온몸두르고

삼매의 불바퀴가 몸을따르니

하늘마귀 외도들과 도깨비는

신비한 주문듣고 두려워 달아나네.

원승가지대위력 속성불사무상도
願承加持大威力 速成佛事無上道

『옴 빌실구리 마하바라 한내 믹집믹
혜마니 미길미 마나세 옴 자가나 오심모
구리 흙흙흙 박박 박박박 사바하』 (3번)

항마진언
降魔眞言

아이금강삼등방편 신승금강반월풍륜
我以金剛三等方便 身乘金剛半月風輪
단상구방남자광명 소여무명소적지신
壇上口放喃字光明 燒汝無明所積之身
역칙천상공중지하 소유일체작제장난
亦勅天上空中地下 所有一切作諸障難
불선심자개래호귀 청아소설가지법음
不善心者皆來胡跪 聽我所說加持法音

크나큰 위신력 가지의 힘입어
불사와 무상도를 속히 이뤄주소서.

『옴 빌실구리 마하바라 한내 믹집믹
혜마니 미길미 마나세 옴 자가나 오심모
구리 흙흙흙 박박 박박박 사바하』 (3번)

항마진언

제가이제 금강의 세가지 방편으로,
금강같고 반월같은 풍륜을타고
단에올라 ‘람’자광명 토해내어,
무명쌓여 이루어진 너의몸을 태우리라.
또한천상 허공땅속 모든세계 명령내려,
일체의 지은장애와 어려움을 없애리니
악한자는 모두와서 무릎꿇고,
내가설한 가지법음 들을지어다.

사제포악패역지심 어불법중함기신심

捨除暴惡悖逆之心 於佛法中咸起信心

옹호도량역호시주 강복소재

擁護道場亦護施主 降福消災

『옴 소마니 소마니 흠 하리한나 하리
한나 흠 하리한나 바나야 흠 아나야
혹 바아밤 바아라 흠 바탁』 (3번)

제석천왕제구에진언

帝釋天王除垢穢真言

『아지부 제리나 아지부 제리나 미아
제리나 오소제리나 아부다 제리나
구소제리나 사바하』 (3번)

어리석고 포악한 마음일랑 모두버리고,
부처님법 가운데서 신심을내어
이도량과 시주들을 옹호하며,
재앙을 없애고 큰복을 내릴지니라.

『옴 소마니 소마니 흠 하리한나 하리
한나 흠 하리한나 바나야 흠 아나야
혹 바아밤 바아라 흠 바탁』 (3번)

제석천왕제구에진언

『아지부 제리나 아지부 제리나 미아
제리나 오소제리나 아부다 제리나
구소제리나 사바하』 (3번)

십대명왕본존진언

十大明王本尊真言

『옴 호로호로 지파지파 반다반다
하나하나 아미리제 오흠박』 (3번)

소청삼계제천진언

召請三界諸天真言

『옴 삼만다 아가리 바리보라리
다가다가 흠 바탁』 (3번)

소청팔부진언

召請八部真言

『옴 살바 디바나 가아나리 사바하』 (3번)

• 화엄경 약찬게 (130쪽 참조)

華嚴經略纂偈

• 반야심경 (46쪽 참조)

般若心經

십대명왕본존진언

『옴 호로호로 지파지파 반다반다
하나하나 아미리제 오흠박』 (3번)

소청삼계제천진언

『옴 삼만다 아가리 바리보라리
다가다가 흠 바탁』 (3번)

소청팔부진언

『옴 살바 디바나 가아나리 사바하』 (3번)

• 화엄경 약찬게 (130쪽 참조)

• 반야심경 (46쪽 참조)

불설소재길상다라니

佛說消災吉祥陀羅尼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
사 사나남 다냐타 옴 카카 카헤 카헤
흠 흠 아바라 아바라 바라아바라
바라아바라 지따지따 지리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하』 (3번)

원성취진언

願成就眞言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흠』 (3번)

보궐진언

補闕眞言

『옴 호로호로 사야모케 사바하』 (3번)

불설소재길상다라니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
사 사나남 다냐타 옴 카카 카헤 카헤
흠 흠 아바라 아바라 바라아바라
바라아바라 지따지따 지리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하』 (3번)

원성취진언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흠』 (3번)

보궐진언

『옴 호로호로 사야모케 사바하』 (3번)

보회향진언

普 回 向 真 言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하
자거라바 흠』 (3번)

화엄성중 정근 (華嚴聖衆 精勤)

나무 불법문중 불리수호 옹호도량
南 無 佛 法 門 中 不 離 守 護 擁 護 道 場

「화엄성중」…….

華 嚴 聖 衆

화엄성중혜감명 사주인사일념지
華 嚴 聖 衆 慧 鑑 明 四 洲 人 事 一 念 知

애민중생여적자 시고아금공경례
哀 愍 衆 生 如 赤 子 是 故 我 今 恭 敬 禮

보회향진언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하
자거라바 흠』 (3번)

화엄성중 정근

나무 불법문중 불리수호 옹호도량
「화엄성중」…….

화엄성중 큰지혜로 밝게살펴
온세계의 모든일을 한순간에 다아시고
모든중생 자식처럼 어여빠~ 여기시니,
저희이제 공경히~ 절하옵니다.



4장 천도의례

1. 관음시식 176
2. 봉송 220
3. 의상조사 법성계 226
4. 송경의식 242

관음시식

觀音施食

거불 (舉佛)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南無極樂導師阿彌陀佛

나무 관음세지 양대보살
南無觀音勢至兩大菩薩

나무 대성인로왕보살
南無大聖引路王菩薩

창혼 (唱魂)

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섬부주
據娑婆世界此四天下南瞻部洲

대한민국 모처 모산 모사 수월도랑
大韓民國某處某山某寺水月道場

관음시식

거불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큰절)

나무 관음세지 양대보살 (큰절)

나무 대성인로왕보살 (큰절)

창혼

사바세계 남섬부주

대한민국 ○○도 ○○시 ○○동

○○산 ○○사 수월도랑에서

금차 지극정성 생전효행 사후건성
今此 至極精誠 生前孝行 死後虔誠

모일재지신 설향단전
某日齋之辰 設香壇前

천혼재자 모처 거주
薦魂齋者 某處居住

행효자 모인 등복위
行孝者 某人等伏爲

망엄부(망자모) 모관 모인 영가
亡嚴父 某貫某人靈駕

금일 영가위주 상서선망 광겁부모
今日 靈駕爲主 上逝先亡 曠劫父母

다생사장 누대종친 원근친척 제형숙백
多生師長 累代宗親 遠近親戚 弟兄叔伯

자매질손 일체권속 등중 각 열명영가
姊妹姪孫 一切眷屬 等衆 各列名靈駕

차 도량내외 동상동하 유주무주
此 道場內外 洞上洞下 有主無主

금일 지성으로 향단 차려 청하온 재자
○○시 ○○동에 거주하는
행효자 ○○○등이 엮드려 청하옵나니,
망엄부(망자모) ○○후인(유인) ○○영가
영가를 위시하여
지난세상에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다생의 스승님,
가깝고 먼친척 등 여러영가와
이도량 안과밖의 영가,
주인있고 주인없는
외로운 영혼을 비롯한 각각의
모든 영가님들을 청하옵니다.

운집고혼 비명액사 일체애혼 등중
雲集孤魂 非命厄死 一切哀魂 等衆

각 열위영가
各列位靈駕

착어 (着語)

영원담적 무고무금 묘체원명 하생하사
靈源湛寂 無古無今 妙體圓明 何生何死

변시 석가세존 마갈엄관지시절
便是釋迦世尊 摩竭掩關之時節

달마대사 소림면벽지가풍
達摩大師 少林面壁之家風

소이 사라수하 괘시쌍부
所以娑羅樹下 柳示雙趺

총령도중 수휴척리
葱嶺途中 手携隻履

금일영가 위주 상래소청 제불자
今日靈駕 爲主 上來召請 諸佛子

착어

신령한 근원은 맑고고요해 옛도없고
지금도 없으며, 신묘한 진리는 또렷이밝아
나고죽음 어디에 있으리까
이도리는 석가세존께서 마가다국에서
묵묵부동 앉아계신 참도리이며,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면벽하신 소식이로세.
이때문에 석가세존 사라수 아래서
관밖으로 두발을 내보이셨고,
달마대사 총령고개 넘으시며
짚신한짝 들고 가셨나니.
영가시여, 청정하고 고요하며 또렷이밝은,
말을떠난 이소식을 아시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요령 3번 올린 후)

환회득 담적원명저 일구마 (양구)

還會得湛寂圓明底一句麼(良久)

부앙은현현 시청명역력

俯仰隱玄玄視聽明歷歷

약야회득 돈증법신 영멸기허 기혹미연

若也會得頓證法身永滅飢虛其或未然

승불신력 장법가지 부차향단 수아묘공

承佛神力仗法加持赴此香壇受我妙供

증오무생

證悟無生

진령계 (振鈴偈)

이차진령신소청 금일영가보문지

以此振鈴伸召請今日靈駕普聞知

원승삼보력가지 금일금시래부회

願承三寶力加持今日今時來赴會

굽어보나 우리르나 숨은뜻은 끝이없고
보거나 듣거나 그진리는 분명하네.
이도리를 깨달으면 단박에 법신을 증득
하여 길이길이 굶주림 벗어날 것이나,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부처님의 신비한힘 받아들이고
부처님 가피력에 의지하여서 이향단에
강림하사 공양을 받으시고
무생법인을 증득하소서.

진령계

이제여기 요령올려 청하오니
영가시여 요령소리 들으시고
삼보님의 위신력에 의지하여
오늘지금 이자리에 이르소서.

착어 (着語)

자광조처연화출 혜안관시지옥공
慈光照處蓮花出 慧眼觀時地獄空

우황대비신주력 중생성불찰나중
又況大悲神呪力 衆生成佛刹那中

금일영가등 상래소청 제불자 등
今日靈駕等 上來召請 諸佛子 等

각 열위영가
各 列位靈駕

천수일편 위고혼 지심제청 지심제수
千手一篇 爲孤魂 至心諦聽 至心諦受

- 신묘장구대다라니 (66쪽 참조)
神妙章句大陀羅尼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착어

자비광명 비치는곳 연꽃피어나
지혜눈길 이르는곳 지옥텅비네.
관세음의 대비신주 의지한다면
중생들의 깨달음은 한순간이리.

금일 ○○영가시여

그리고 앞에서청한 여러 영가들이시여
천수다라니 한편으로
고독한 혼령을 위하고자 함이니
지극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으시고
받아 지니소서.

- 신묘장구대다라니 (66쪽 참조)

과거현재 미래의 모든세계와
일체의 부처님을 알고자하면
마땅히 법계성품 관할지니
모든것은 이마음이 지었느니라.

파지옥진언
破地獄真言

『옴 가라지야 사바하』 (3번)

해원결진언
解冤結真言

『옴 삼다라 가닥 사바하』 (3번)

보소청진언
普召請真言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
아다야』 (3번)

나무 상주시방불 나무 상주시방법
南無常住十方佛 南無常住十方法

나무 상주시방승
南無常住十方僧

나무 대자대비구고관세음보살
南無大慈大悲救苦觀世音菩薩

파지옥진언

『옴 가라지야 사바하』 (3번)

해원결진언

『옴 삼다라 가닥 사바하』 (3번)

보소청진언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
아다야』 (3번)

나무 상주시방불 나무 상주시방법

나무 상주시방승

나무 대자대비구고관세음보살

『나무 대방광불화엄경』 (3번)

南 無 大 方 廣 佛 華 嚴 經

고혼청 (孤魂請)

일심봉청 실상이명 범신무적

一 心 奉 請 實 相 離 名 法 身 無 跡

종연은현 약경상지유무

從 緣 隱 現 若 鏡 像 之 有 無

수업승침 여정륜지고하

隨 業 昇 沈 如 井 輪 之 高 下

묘변막측 환래하란

妙 變 莫 測 幻 來 何 難

금차 지극정성 제당사후 모일재지신

今 此 至 極 精 誠 第 當 死 後 某 日 齋 之 辰

설향단전 봉청재자 모처 거주

設 香 壇 前 奉 請 齋 者 某 處 居 住

행효자 모인 등복위

行 孝 子 某 人 等 伏 爲

『나무 대방광불화엄경』 (3번)

고혼청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실상은 이름을 떠나있고

범신은 자취가 없어서

인연따라 나타났다 사라짐이

거울속에 비치는 모습과같고

업을따라 떠오르고 내려감은

두레박이 오르고 내림과같아

오묘한변화 헤아릴수 없거늘,

이자리에 오심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망엄부 모관 모인 영가

亡嚴父 某貴 某人 靈駕

영가위주 각 상서선망 광겁부모 다생사장

靈駕爲主 各 上逝先亡 曠劫父母 多生師長

누대종친 원근친척 제형숙백 자매질손

累代宗親 遠近親戚 弟兄叔伯 姉妹姪孫

일체친속 등중 각 열명영가

一切親屬 等衆 各 列名靈駕

차 도량내외 동상동하 유주무주

此道場內外 洞上洞下 有主無主

운집고혼 비명액사 일체애혼 등중

雲集孤魂 非命厄死 一切哀魂 等衆

각 열위영가

各 列位靈駕

승불위광 내예향단 수침법공

承佛威光 來詣香壇 受齋法供

오늘 영가를 인도하려는

○○의 부친 ○○영가님을

일심으로 청합니다.

영가를 위주로

다생의 스승님과

여러생의 부모형제 자매질손

원근친척 영가님들이시여!

내지 법계의 모든 외로운 불자님들과

이도량내외 유주무주

외로운 영가님들이시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자와

이향단에 오셔서 법공양을 받으소서.

『향연청』 (3번)

香花請

제령한진치신망 석화광음몽일장
諸靈限盡致身亡 石火光陰夢一場

삼흔묘묘귀하처 칠백망망거원향
三魂杳杳歸何處 七魄茫茫去遠鄉

수위안좌진언

受位安座眞言

『옴 마니 군다니 흠흠 사바하』 (3번)

다게 (茶偈)

백초임중일미신 조주상권기천인
百草林中一味新 趙州常勸幾千人

팽장석정강심수
烹將石鼎江心水

향연청

향 사르며 청하옵고

향 사르며 청하옵고

향 사르며 청하옵니다.

세상인연 다하여서 죽음이르니

번개같은 인생이여 한판꿈이라.

아득하다 삼흔이여 어디로가고

망망해라 칠백이여 멀리떠났네.

수위안좌진언

『옴 마니 군다니 흠흠 사바하』 (3번)

다게

온갖초목 한결같은 신선한차맛

조주스님 몇천사람 권하였던가.

돌솥에다 맑은물을 다려드리니

원사망령혈고륜

願使亡靈歇苦輪

원사제령혈고륜

願使諸靈歇苦輪

원사고혼혈고륜

願使孤魂歇苦輪

선밀가지 신전윤택 업화청량 각구해탈

宣密加持 身田潤澤 業火清涼 各求解脫

변식가지 (變食加持)

변식진언

變食眞言

『나막 살바 다타아다 바로기제 옴
삼바라 삼바라 흠』 (3번)

시감로수진언

施甘露水眞言

『나무 소로바야 다타아다야 다냐타
옴 소로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망령이여, 드시고서 안락하소서 (큰절)

제령이여, 드시고서 안락하소서 (큰절)

고혼이여, 드시고서 안락하소서 (큰절)

비밀한 가지를 베푸오니

몸과마음 윤택해지고 업의불길 청량해져
해탈을 구하소서.

변식가지

변식진언

『나막 살바 다타아다 바로기제 옴
삼바라 삼바라 흠』 (3번)

시감로수진언

『나무 소로바야 다타아다야 다냐타
옴 소로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사바하』 (3번)

일자수륜관진언
一字水輪觀眞言

『옴 밤 밤 밤밤』 (3번)

유해진언
乳海眞言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밤』 (3번)

칭양성호 (稱揚聖號)

나무 다보여래 원제고혼 파제간탐
南無多寶如來願諸孤魂破除慳貪

법재구족
法財具足

나무 묘색신여래 원제고혼 이추루형
南無妙色身如來願諸孤魂離醜陋形

사바하』 (3번)

일자수륜관진언

『옴 밤 밤 밤밤』 (3번)

유해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밤』 (3번)

칭양성호

나무 다보여래, 금일영가 탐욕버리고
보배로운 법의재물 갖춰지이다.
나무 묘색신여래, 금일영가 추한몸
벗어내고 원만상호 이뤄지이다.

상호원만

相好圓滿

나무 광박신여래 원제고혼 사육범신

南無廣博身如來願諸孤魂捨六凡身

오허공신

悟虛空身

나무 이포외여래 원제고혼 이제포외

南無離怖畏如來願諸孤魂離諸怖畏

득열반락

得涅槃樂

나무 감로왕여래 원아각각 열명영가

南無甘露王如來願我各各列名靈駕

인후개통 획득감로미

咽喉開通獲甘露味

풍송가지 (調誦加持)

원차가지식 보변만시방

願此加持食普遍滿十方

식자제기갈 득생안양국

食者除飢渴得生安養國

나무 광박신여래, 금일영가

육도의 범부몸 벗어버리고

허공같은 본래의몸 깨쳐지이다.

나무 이포외여래, 금일영가

모든두려움 벗어나서 열반락을 누리지이다.

감로왕여래, 금일영가

목이 활짝열려 감로미를 얻어지이다.

풍송가지

이가지 공양이 시방세계 두루하여서

드신이는 주림과 목마름덜고

극락세계 태어나소서.

시귀식진언
施鬼食眞言

『옴 미기미기 야야 미기 사바하』 (3번)

보공양진언
普供養眞言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흠』 (3번)

수아차법식 하이아난찬 기장함포만
受我此法食 何異阿難饌 飢腸咸飽滿

업화돈청량 돈사탐진치 상귀불법승
業火頓清涼 頓捨貪嗔癡 常歸佛法僧

염념보리심 처처안락국
念念菩提心 處處安樂國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즉견여래
卽見如來

시귀식진언

『옴 미기미기 야야 미기 사바하』 (3번)

보공양진언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흠』 (3번)

지금받은 법공양은 아난찬과 다르잖고
주린배는 배부르고 업의불길 꺼지리다.
탐진치를 떨쳐내고 불법승에 의지하여
보리심을 안앗으면 모든곳이 극락이라.
무릇 형상있는 모든것은 허망하니,
모든 형상이 형상아님을 보면
바로 여래를 보리라.

여래십호

如來十號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如來 應供 正遍智 明行足 善逝 世間解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世尊

제법종본래 상자적멸상

諸法從本來 常自寂滅相

불자행도이 내세득작불

佛子行道已 來世得作佛

제행무상 시생멸법

諸行無常 是生滅法

생멸멸이 적멸위락

生滅滅已 寂滅爲樂

여래십호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모든법은 본래부터
적멸의 모습이니
이도리를 잘행하면
오는세상 부처되리.

모든행은 무상하니
생겨나고 사라지네.
생멸이~ 다해지면
다름아닌 적멸일세.

장엄염불 (莊嚴念佛)

원아진생무별념 아미타불독상수
願我盡生無別念 阿彌陀佛獨相隨

심심상계옥호광 염념불리금색상
心心常係玉毫光 念念不離金色相

아집염주법계관 허공위승무불관
我執念珠法界觀 虛空爲繩無不貴

평등사나무하처 관구서방아미타
平等舍那無何處 觀求西方阿彌陀

나무서방대교주 무량수여래불
南無西方大教主 無量壽如來佛

나무아미타불 ... (시간에 따라 약간)
南無阿彌陀佛

장엄염불

원하오니 저희목숨 다할때까지
어느때나 아미타불 항상외우며
마음마다 옥호광명 떠올리면서
생각마다 금빛모습 간직하오며
염주들고 시방법계 관하옵나니
허공으로 끈을삼아 모두꺾어서
평등하신 노사나불 항상계시니
서방정토 아미타불 관하옵니다.

나무서방대교주 무량수여래불
나무아미타불 ... (시간에 따라 약간)

극락세계십종장엄 나무아미타불
極樂世界十種莊嚴 南無阿彌陀佛

법장서원수인장엄 나무아미타불
法藏誓願修因莊嚴 南無阿彌陀佛

사십팔원원력장엄 나무아미타불
四十八願願力莊嚴 南無阿彌陀佛

미타명호수광장엄 나무아미타불
彌陀名號壽光莊嚴 南無阿彌陀佛

삼대사관보상장엄 나무아미타불
三大士觀寶像莊嚴 南無阿彌陀佛

미타국토안락장엄 나무아미타불
彌陀國土安樂莊嚴 南無阿彌陀佛

보하청정덕수장엄 나무아미타불
寶河清淨德水莊嚴 南無阿彌陀佛

보전여의누각장엄 나무아미타불
寶殿如意樓閣莊嚴 南無阿彌陀佛

주야장원시분장엄 나무아미타불
晝夜長遠時分莊嚴 南無阿彌陀佛

이십사락정토장엄 나무아미타불
二十四樂淨土莊嚴 南無阿彌陀佛

극락세계십종장엄 나무아미타불

법장비구 서원세워 인행뒀은 수인장엄
나무아미타불

마흔여덟 크신본원 그서원의 원력장엄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명호속의 한량없는 수광장엄
나무아미타불

세분성인 거룩하신 그모습의 보상장엄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극락정토 편안하온 안락장엄
나무아미타불

보석같이 맑은강물 팔공덕수 덕수장엄
나무아미타불

보배장식 궁전누각 아름다운 누각장엄
나무아미타불

낮과밤이 길고길어 가이없는 시분장엄
나무아미타불

이십사종 즐거움이 맑고맑은 정토장엄
나무아미타불

삼십종의공덕장엄 나무아미타불
三十種益功德莊嚴 南無阿彌陀佛

청산첩첩미타굴 나무아미타불
靑山疊疊彌陀窟 南無阿彌陀佛

창해망망적멸궁 나무아미타불
滄海茫茫寂滅宮 南無阿彌陀佛

물물염래무가애 나무아미타불
物物拈來無罣碍 南無阿彌陀佛

기간송정학두홍 나무아미타불
幾看松亭鶴頭紅 南無阿彌陀佛

극락당전만월용 나무아미타불
極樂堂前滿月容 南無阿彌陀佛

옥호금색조허공 나무아미타불
玉毫金色照虛空 南無阿彌陀佛

약인일념칭명호 나무아미타불
若人一念稱名號 南無阿彌陀佛

경각원성무량공 나무아미타불
頃刻圓成無量功 南無阿彌陀佛

가지가지 이로운일 서른가지 공덕장엄
나무아미타불

겹겹으로 푸른산은 아미타불 법당이요
나무아미타불

아득하게 넓은바다 적멸보궁 도량이라.
나무아미타불

세상만사 무얼해도 걸릴것이 없으리니
나무아미타불

소나무위 학의머리 붉은것을 보게되리.
나무아미타불

서방정토 극락세계 만월같은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금빛몸과 옥빛광명 온허공을 비추나니
나무아미타불

누구든지 일념으로 아미타불 부른다면
나무아미타불

순식간에 무량공덕 원만하게 이루리라.
나무아미타불

삼계유여급정륜 나무아미타불
三界猶如汲井輪 南無阿彌陀佛

백천만겁역미진 나무아미타불
百千萬劫歷微塵 南無阿彌陀佛

차신불향금생도 나무아미타불
此身不向今生度 南無阿彌陀佛

갱대하생도차신 나무아미타불
更待何生度此身 南無阿彌陀佛

아차보현수승행 나무아미타불
我此普賢殊勝行 南無阿彌陀佛

무변승복개회향 나무아미타불
無邊勝福皆迴向 南無阿彌陀佛

보원침익제중생 나무아미타불
普願沈溺諸衆生 南無阿彌陀佛

속왕무량광불찰 나무아미타불
速往無量光佛刹 南無阿彌陀佛

아미타불재하방 나무아미타불
阿彌陀佛在何方 南無阿彌陀佛

삼계윤회 도는것이 두레박질 같으니
나무아미타불

백천만겁 지나도록 한량없이 오고갔네
나무아미타불

이몸받은 금생안에 깨달음을 못얻으면
나무아미타불

어느생에 다시나서 이내몸을 건지리오.
나무아미타불

제가이제 보현보살 거룩하신 행원으로
나무아미타불

가이없는 뛰어난복 모두회향 하옵나니
나무아미타불

고통속의 모든중생 빠짐없이 구제하여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극락세계 빨리가게 하옵소서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은 어느곳에 계시는가
나무아미타불

착득심두절막망 나무아미타불
着得心頭切莫忘 南無阿彌陀佛

염도염궁무염처 나무아미타불
念到念窮無念處 南無阿彌陀佛

육문상방자금광 나무아미타불
六門常放紫金光 南無阿彌陀佛

원공법계제중생 나무아미타불
願共法界諸衆生 南無阿彌陀佛

동입미타대원해 나무아미타불
同入彌陀大願海 南無阿彌陀佛

진미래제도중생 나무아미타불
盡未來際度衆生 南無阿彌陀佛

자타일시성불도 나무아미타불
自他一時成佛道 南無阿彌陀佛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삼십육만억
南無西方淨土 極樂世界 三十六萬億

일십일만 구천오백 동명동호 대자
一十一萬 九千五百 同名同號 大慈

마음깊이 새겨두고 간절하게 잊지마소
나무아미타불

생각하고 생각하여 무념처에 이른다면
나무아미타불

여섯문이 어느때나 금색광명 빛나리라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원력바다 모두함께 들어가서
나무아미타불

미래세가 다하도록 모든중생 제도하고
나무아미타불

너나없이 모두함께 성불하기 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서방정토 극락세계 삼십육만억

일십일만 구천오백 동일명호

대자대비 아미타부처님께 귀명합니다.

대비 아미타불

大悲阿彌陀佛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불신장광

南無西方淨土極樂世界佛身長廣

상호무변 금색광명 변조법계 사십팔원

相好無邊金色光明遍照法界四十八願

도탈중생 불가설 불가설전 불가설

度脫衆生不可說不可說轉不可說

항하사 불찰미진수 도마죽위 무한극수

恒河沙佛刹微塵數稻麻竹葦無限極數

삼백육십만억 일십일만 구천오백

三百六十萬億一十一萬九千五百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등도사

同名同號大慈大悲我等導師

금색여래 아미타불

金色如來阿彌陀佛

나무문수보살

南無文殊菩薩

나무보현보살

南無普賢菩薩

서방정토 극락세계 장대한 몸과 가이없는 상호로써 모든법계 금빛광명 비추시어 마흔여덟 원력으로 불가설 불가설전 불가설 항하사 불찬미진수 도마죽위 무한극수의 한량없는 중생을 건지오신 삼백육십만억 일십일만 구천오백 동일명호 대자비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금색여래 아미타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나무문수보살

나무보현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나무금강장보살

나무제장애보살

나무미륵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일체청정대해중보살마하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南無觀世音菩薩 南無大勢至菩薩

나무금강장보살 나무제장애보살
南無金剛藏菩薩 南無除障礙菩薩

나무미륵보살 나무지장보살
南無彌勒菩薩 南無地藏菩薩

나무일체청정대해중보살마하살
南無一切清淨大海衆菩薩摩訶薩

원공법계제중생 동입미타대원해
願共法界諸衆生 同入彌陀大願海

발원계 (發願偈)

시방삼세불 아미타제일 구품도중생
十方三世佛 阿彌陀第一 九品度衆生

위덕무궁극 아금대귀의 참회삼업죄
威德無窮極 我今大歸依 懺悔三業罪

범유제복선 지심용회향 원동염불인
凡有諸福善 至心用回向 願同念佛人

아미타불 원력바다 모두함께 들어가세

발원계

시방삼세 부처님중 아미타불 제일이라
구품으로 중생진진 크신위덕 한량없네
저희이제 귀의하며 삼업죄를 참회하고
모든복과 좋은업을 지심으로 회향하며
염불하는 모든이가 극락세계 태어나서
부처뵈고 생사깨쳐 일체중생 건지오리다.

왕생계

나의목숨 다할때에 모든장애 사라져서
아미타불 친견하고 왕생극락 하오리다
이공덕이 모든곳에 두루퍼져

진생극락국 견불요생사 여불도일체
盡生極樂國見佛了生死如佛度一切

왕생계 (往生偈)

원아임욕명종시 진제일체제장애
願我臨欲命終時盡除一切諸障礙

면견피불아미타 즉득왕생안락찰
面見彼佛阿彌陀卽得往生安樂刹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중생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當生極樂國同見無量壽皆共成佛道

우리모두 극락국토 태어나서
아미타불 친견하고
모두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봉 송
奉 送

봉송소는 한문이 아닌 한글로 작성되었으므로
한문본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봉송소

오늘 청하온 ○○영가시여,
그리고 여기오신 여러 영가들이시여,
이상으로써 부처님의 법력에 힘입어 이자리에
강림하여 법다운 공양을 배불리받고 거룩한 법문을
기쁘게 들으셨으니, 이제다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지나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를
향해 길을떠날 차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세상에서 못다한 미련들은 하나도 생각지마시고
극락세계의 구품연대에 상품상생하여 무생법인을
누리소서. 남아있는 유족들 모두가 건강하고
복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항상바르고 떳떳하게
살도록 보살펴 주소서. 이제 떠나기에 앞서 유족들의
인사를 받으시고, 이어 영가님 자신도 삼보전에
하직인사를 드리실 차례이오니
다음의 법요에 귀를 기울이소서.

봉송계 (奉送偈)

봉송고혼계유정 지옥아귀급방생
奉送孤魂洎有情 地獄餓鬼及傍生
아어타일건도량 불위본서환래부
我於他日建道場 不違本誓還來赴

금일 ○○영가
今日 ○○靈駕

기수향공 이청법음 금당봉송
既受香供 已聽法音 今當奉送

갱의진성 봉사삼보
更宜虔誠 奉謝三寶

보례삼보 (普禮三寶)

보례시방상주불
普禮十方常住佛

보례시방상주법
普禮十方常住法

보례시방상주승
普禮十方常住僧

봉송계

영가와 고훈 유정 지옥 아귀 축생계의
영가들을 함께 보내드리오니,
제가다시 다른날에 추선도량 세우리니
본래서원 잊지말고 다시 돌아오소서.

오늘 청하온 ○○영가시여
향기로운 공양을 받고
미묘한 법문을 들었사오니
떠나기전 정성다해 삼보님께 예경하소서.

보례삼보

시방에 항상계신 불보님께 절하옵니다.
시방에 항상계신 법보님께 절하옵니다.
시방에 항상계신 승보님께 절하옵니다.

행보게 (行步偈)

이행천리만허공 귀도정망도정방
移 行 千 里 滿 虛 空 歸 途 情 忘 到 淨 邦

삼업투성삼보례 성범동회법왕궁
三 業 投 誠 三 寶 禮 聖 凡 同 會 法 王 宮

『산화락』 (3번)

散 花 落

『나무대성인로왕보살』 (3번)

南 無 大 聖 引 路 王 菩 薩

행보게

천리를 옮겨가니 허공을 넘으셔서
돌아가는 길에 정을버리면 정토에 이르시네.
삼업을 다하여 정성스레 삼보님께 절하오니
성인범부 모두함께 법왕궁에서 만나네.

산화락

꽃을 뿌려 장엄하오며
꽃을 뿌려 장엄하오며
꽃을 뿌려 영가의 앞길을 장엄합니다.

『나무대성인로왕보살』 (3번)

의상조사 법성게

義湘祖師 法性偈

법성원융무이상

法性圓融無二相

무명무상절일체

無名無相絕一切

진성심심극미묘

眞性甚深極微妙

일중일체다중일

一中一切多中一

일미진중함시방

一微塵中含十方

무량원겁즉일념

無量遠劫卽一念

구세십세호상즉

九世十世互相卽

초발심시변정각

初發心時便正覺

이사명연무분별

理事冥然無分別

제법부동본래적

諸法不動本來寂

증지소지비여경

證智所知非餘境

불수자성수연성

不守自性隨緣成

일즉일체다즉일

一卽一切多卽一

일체진중역여시

一切塵中亦如是

일념즉시무량겁

一念卽是無量劫

잉불잡란격별성

仍不雜亂隔別成

생사열반상공화

生死涅槃常共和

십불보현대인경

十佛普賢大人境

의상조사 법성게

법의성품	원융하여	두모습이	원래없고
모든법은	부동하여	본래부터	고요하며
이름없고	모습없어	모든것이	끊어졌고
증지소지	깨달음은	다른경계	아니로라.
참된성품	깊고깊어	미묘하고	지극하여
자기성품	지키잡고	인연따라	이루었네.
하나속에	일체이고	일체속에	하나이며
하나바로	일체이고	일체바로	하나이네.
작은티끌	하나속에	시방세계	머금었고
일체모든	티끌속에	하나하나	그리하네.
한량없는	오랜시간	찰나생각	다름없고
찰나순간	한생각이	한량없는	시간이니
구세십세	서로접쳐	어우러져	돌아가도
혼란하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이뤄졌네.
초발심의	그순간에	바른깨침	바로 얻고

능인해인삼매중
能仁海印三昧中

번출여의부사의
繁出如意不思議

우보익생만허공
雨寶益生滿虛空

중생수기득이익
衆生隨器得利益

시고행자환본제
是故行者還本際

파식망상필부득
叵息妄想必不得

무연선교착여의
無緣善巧捉如意

귀가수분득자량
歸家隨分得資糧

이다라니무진보
以陀羅尼無盡寶

장엄법계실보전
莊嚴法界實寶殿

궁좌실제중도상
窮坐實際中道床

구래부동명위불
舊來不動名爲佛

생과죽음	열반세계	항상서로	함께하네.
이치현상	명연하여	분별할수	없음이나
열부처님	보현보살	대성인의	경계일세.
부처님의	해인삼매	자재하게	들어가서
불가사의	여의주를	마음대로	드러내니
중생위한	보배비가	온허공에	가득하여
중생들은	그릇대로	모두이익	얻게되네.
그러므로	수행자가	본래자리	돌아갈제
망상심을	쉬잖으면	그자리에	못가리니
분별없는	좋은방편	마음대로	구사하고
본래집에	돌아갈제	분수따라	자랑언네.
신령스런	다라니의	한량없는	보배로써
온법계를	장엄하여	보배궁전	이루어져
진여실상	중도자리	오롯하게	앉았으니
옛적부터	동함없이	부처라고	이름하네.

소대의식 (燒臺儀式)

금차지극정성 모일재후 위패문외
今此至極精誠 某日齋後 位牌門外

봉송재자 모처 거주
奉送齋者 某處 居住

행효자 모인 등복위
行孝子 某人 等伏爲

망엄부 모인 영가
亡嚴父 某人 靈駕

금일영가위주 상서선망 광겁부모
今日靈駕爲主 上逝先亡 曠劫父母

다생사장 누대종친 원근친척 제형숙백
多生師長 累代宗親 遠近親戚 弟兄叔伯

자매질손 일체권속
姉妹姪孫 一切眷屬

등중 각 열명영가
等衆 各 列名靈駕

소대의식

문밖에 나와서 전송하나니
오늘 천도받은 ○○영가시여

영가를 위시하여
지난 세상에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다생의 스승님,
가깝고 먼친척등 여러 영가와
이도량 안과밖의 영가,
주인있고 주인없는
외로운 영혼을 비롯한
각각의 모든 영가시여.

차 도량내외 동상동하 유주무주

此 道 場 內 外 洞 上 洞 下 有 主 無 主

운집고혼 비명액사 일체애혼 등중 각

雲 集 孤 魂 非 命 厄 死 一 切 哀 魂 等 衆 各

열명영가

列 名 靈 駕

상래 시식풍경 염불공덕 이망연야

上 來 施 食 諷 經 念 佛 功 德 離 妄 緣 耶

불리망연야 이망연즉 극락불찰 임성소요

不 離 妄 緣 耶 離 妄 緣 則 極 樂 佛 刹 任 性 逍 遙

불리망연즉 차청산승 말후일계

不 離 妄 緣 卽 且 聽 山 僧 末 後 一 偈

사대각리여몽중 육진심식본래공

四 大 各 離 如 夢 中 六 塵 心 識 本 來 空

욕식불조회광처 일락서산월출동

欲 識 佛 祖 回 光 處 日 落 西 山 月 出 東

지금까지 시식하고 송경하며

일심으로 염불공덕 갖추었으니

집착했던 망연들을 여의었습니까?

여의었으면 극락정토 뜻대로 가시고

여의지 못했으면 다시 다음계송 들으소서.

사대를 바라보니 꿈속과같고

육진이며 알음알이 본래공이라.

부처님 조사님 광명자리 알려하는가.

서산에 해가지니 동녘에 달이뜨네.

염 시방삼세 일체제불 제존보살

念 十 方 三 世 一 切 諸 佛 諸 尊 菩 薩

마하살 마하반야바라밀

摩 訶 薩 摩 訶 般 若 波 羅 蜜

원왕생 원왕생 왕생극락견미타

願 往 生 願 往 生 往 生 極 樂 見 彌 陀

획몽마정수기별 원왕생 원왕생

獲 蒙 摩 頂 受 記 別 願 往 生 願 往 生

원재미타회중좌 수집향화상공양

願 在 彌 陀 會 中 座 手 執 香 華 常 供 養

원왕생 원왕생 원왕생화장연화계

願 往 生 願 往 生 願 往 生 華 藏 蓮 華 界

자타일시성불도

自 他 一 時 成 佛 道

시방삼세일체불

제존보살마하살

마하반야바라밀

가서나리 가서나리 극락세계 가서나리

아미타불 친견하고 마정수기 받으리다.

가서나리 가서나리 미타회상 머물면서

향과꽃을 손에들고 항상공양 하오리다.

가서나리 가서나리 화장세계 가서나서

모두함께 한순간에 깨달음을 이루오리다.

소전진언
燒錢真言

『옴 비로기제 사바하』 (3번)

봉송진언
奉送真言

『옴 바아라 사다 목차목』 (3번)

상품상생진언
上品上生真言

『옴 마리다리 흙흙 바탁 사바하』 (3번)

처세간여허공 여련화불착수
處世間如虛空 如蓮華不着水

심청정초어피 계수례무상존
心淸淨超於彼 稽首禮無上尊

귀위불 귀의법 귀의승
歸依佛 歸依法 歸依僧

소전진언

『옴 비로기제 사바하』 (3번)

봉송진언

『옴 바아라 사다 목차목』 (3번)

상품상생진언

『옴 마리다리 흙흙 바탁 사바하』 (3번)

세간에 머물되 걸림없는 허공같고
진흙에 물들지않는 연꽃과같이
청정해진 마음으로 정토에가서
위~없는 부처님께 절하오소서.

귀위불 귀의법 귀의승

귀의불양족존 귀의법이욕존
歸依佛兩足尊 歸依法離欲尊

귀의승중중존
歸依僧衆中尊

귀의불경 귀의법경 귀의승경
歸依佛竟 歸依法竟 歸依僧竟

선보운정 복유진중
善步雲程 伏惟珍重

보회향진언
普回向眞言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하
자거라바 흠』 (3번)

귀의불양족존 귀의법이욕존
귀의승중중존

귀의불경 귀의법경 귀의승경

구름다리 잘가셔서,
편안하게 계시옵소서.

보회향진언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하
자거라바 흠』 (3번)

파산게 (破散偈)

화탕풍요천지괴 요요장재백운간
火湯風搖天地壞 寥寥長在白雲間

일성휘파금성벽 단향불전칠보산
一聲揮破金城壁 但向佛前七寶山

나무 환희장마니보적불
南無歡喜藏摩尼寶積佛

나무 원만장보살마하살
南無圓滿藏菩薩摩訶薩

나무 회향장보살마하살
南無迴向藏菩薩摩訶薩

파산게

불이타고 바람불어 천지가 무너져도
고요히 백운사이 오래머무네.
한소리에 금성철벽 부숩버리고
부처님전 칠보산을 향하옵니다.

나무 환희장마니보적불

나무 원만장보살마하살

나무 회향장보살마하살.

송경의식

誦經儀式

부음을 듣고 상가에 조문 염불을 할 때 하는 염불의식

입정

入定

거불 (擧佛)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3번)

『나무접인망령 대성인로왕보살마하살』

창혼 (唱魂)

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섬부주

대한민국 ○○○병원 장례식장 (장례식장

주소와 명칭) 결계도량

신원적 불자 ○○(법명) ○○○씨

○○(이름)영가

독송

자비광명 비치는곳 연꽃피어나
지혜눈길 이르는곳 지옥텅비네.
관세음의 대비신주 의지한다면
중생들의 깨달음은 한순간이리.

송경 (誦經)

신원적 ○○○씨 ○○영가!
금일 영가를위해
대승경전 ○○○을 독송하오니
지극한 마음으로 살펴 들으시고
받아 지니소서.

정구업진언
淨口業眞言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3번)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五方内外安慰諸神眞言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 도로
지미 사바하』 (3번)

개경계
開經偈

위~없이 심히깊은 미묘한법을
백천만겁 지난들~ 어찌만나리
제가이제 보고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뜻 알아지이다.

개법장진언
開法藏眞言

『옴 아라남 아라다』 (3번)

• 경전독송

(천수경, 금강경, 아미타경, 원각경보안보살장, 무상계,
영가전에, 장엄염불, 반야심경)

• 장엄염불 (204쪽 참조)
莊嚴念佛

무량수불설왕생정토주
無量壽佛說往生淨土呪

『나무 아미다바야 다타아다야 다디
야타 아미리 도바비 아미리다 싯
담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
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깃다
가례 사바하』 (3번)

광명진언
光明眞言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타야 흠』 (7, 21번)

서방정토 극락으로 중생인도 하옵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머리숙여 절하오며
제가이제 일심으로 극락왕생 원하오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섭수하여 주옵소서

왕생발원

독송

대자대비하신 극락세계
아미타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일심으로 기원하오니
신원적 ○○○씨 ○○영가에게
막힘없는 크신위신력 내려지이다.

합송

지난생과 살아생전 지은업장은
모두다 남김없이 소멸되고
살아생전 못다한 수행공덕은
한결같이 원만하게 갖춰지오며
잠시라도 어두운길 머물지말고
서방정토 극락세계 곧바로가서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옵고
위없는 미묘법문 받아지니며
무생법인 남김없이 요달하시고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시어
이세간에 원력으로 다시오실때
모든이의 성불인연 갖춰오소서.

독송

금일 재자 ○○○가족의 슬픔을 거두시어
하루속히 평온을 회복하게 하여주시고
영가께서 남기신 삶의 의지를 본받아
가족과 일문권속이 더욱 화합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합송

오늘 이 염불공덕으로 금일재자의
가문이 더욱 번창하고 자손들의 복록이
증장되어지이다. 염불하온 무량공덕
회향하오니 일체의 중생에게 널리미쳐
우리모두 불도를 함께 이뤄지이다.
마하반야바라밀



5장 독송경전

1. 영가전에 252
2. 우리말 불설아미타경 258
3. 불설아미타경 274
4. 금강경 289
5. 우리말 관세음보살보문품 ... 330
6. 우리말 무상계..... 352

영가전에

영가시여 저희들이 일심으로 염불하니
 무명업장 소멸하고 반야지혜 드러내어
 생사고해 벗어나서 해탈열반 성취하사
 극락왕생 하옵시고 모두성불 하옵소서
 사대육신 허망하여 결국에는 사라지니
 이육신에 집착말고 참된도리 깨달으면
 모든고통 벗어나고 부처님을 친견하리
 살아생전 애착하던 사대육신 무엇인고
 한순간에 숨겨두니 주인없는 목석일세
 인연따라 모인것은 인연따라 흩어지니
 태어남도 인연이요 돌아감도 인연인걸
 그무엇을 애착하고 그무엇을 슬퍼하라

몸뚱이를 가진자는 그림자가 따르듯이
 일생동안 살다보면 죄없다고 말못하리
 죄의실체 본래없어 마음따라 생기나니
 마음쓰미 없어질때 죄업역시 사라지네
 죄란생각 없어지고 마음또한 텅비워서
 무념처에 도달하면 참회했다 말하리라
 한마음이 청정하면 온세계가 청정하니
 모든업장 참회하여 청정으로 돌아가면
 영가님이 가시는길 광명으로 가득하리
 가시는길 천리만리 극락정토 어디인가
 번뇌망상 없어진곳 그자리가 극락이니
 삼독심을 버리고서 부처님께 귀의하면
 무명업장 벗어나서 극락세계 왕생하리
 제행은 무상이요 생자는 필멸이라
 태어났다 죽는것은 모든생명 이치이니

임금으로 태어나서 온천하를 호령해도
 결국에는 죽는것을 영가님은 모르는가
 영가시여 어디에서 이세상에 오셨다가
 가신다니 가시는곳 어디인줄 아시는가
 태어났다 죽는것은 중생계의 흐름이라
 이곳에서 가시면은 저세상에 태어나니
 오는듯이 가시웁고 가는듯이 오신다면
 이육신의 마지막을 걱정할것 없잖은가
 일가친척 많이있고 부귀영화 높았어도
 죽는길엔 누구하나 힘이되지 못한다네
 맺고쌓은 모든감정 가시는길 짐되오니
 염불하는 인연으로 남김없이 놓으소서
 미웠던일 용서하고 탐욕심을 버려야만
 청정하신 마음으로 불국정토 가시리라
 샷된마음 멀리하고 미혹함을 벗어나야

반야지혜 이루시고 왕생극락 하오리다
 본마음은 고요하여 옛과지금 없다하니
 태어남은 무엇이고 돌아감은 무엇인가
 부처님이 관밖으로 양쪽발을 보이셨고
 달마대사 총령으로 짚신한짝 갖고갔네
 이와같은 높은도리 영가님이 깨달으면
 생과사를 넘었거늘 그무엇을 슬퍼하랴
 뜬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짐이 인연이듯
 중생들의 생과사도 인연따라 나타나니
 좋은인연 간직하고 나쁜인연 버리시면
 이다음에 태어날때 좋은인연 만나리라
 사대육신 흩어지고 업식만을 가져가니
 탐욕심을 버리시고 미움또한 거두시며
 사견마저 버리시어 청정해진 마음으로
 부처님의 품에안겨 왕생극락 하옵소서

돌고도는 생사유회 자기업을 따르오니
 오고감을 슬퍼말고 환희로써 발심하여
 무명업장 밝히시면 무거운짐 모두벗고
 삼악도를 뛰어넘어 극락세계 가오리다
 이세상에 처음올때 영가님은 누구셨고
 사바일생 마치시고 가시는이 누구신가
 물이얼어 얼음되고 얼음녹아 물이되듯
 이세상의 삶과죽음 물과얼음 같오오니
 육친으로 맺은정을 가벼웁게 거두시고
 청정해진 업식으로 극락왕생 하옵소서
 영가시여 사바일생 다마치는 임종시에
 지은죄업 남김없이 부처님께 참회하고
 한순간도 잊지않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가고오는 곳곳마다 그대로가 극락이니
 첩첩쌓인 푸른산은 부처님의 도량이요

맑은하늘 흰구름은 부처님의 발자취며
 못생명의 노랫소리 부처님의 설법이고
 대자연의 고요함은 부처님의 마음이니
 불심으로 바라보면 온세상이 불국토요
 범부들의 마음에는 불국토가 사바로다
 애착하던 사바일생 하룻밤의 꿈과같고
 나다너다 모든분별 본래부터 공이거니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가시거늘
 그무엇에 얽매여서 극락왕생 못하시나
 저희들이 일심으로 독송하는 진언따라
 지옥세계 무너지고 맺은원결 풀어지며
 아미타불 극락세계 상품상생 하옵소서

우리말 불설아미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 위대한 비구 천이백오십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위대한 아라한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장로 사리불, 마하목건련, 마하가섭, 마하가전연, 마하구치라, 리바다, 주리반타가, 난타, 아난다, 라홀라, 교범바제, 빈두로파라다, 가루다이, 마하점빈나, 바구라, 아니룻다 등과 같은 훌륭한 제자들과 보살마하살인 문수사리법왕자, 아일다보살, 건다하제보살, 상정진보살 등 위대한 보살들과 석제환인 등 수많은 천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십만억 불국토를 지나는 곳에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극락이요,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니, 명호가 아미타불이시라 지금도 설법하고 계신다.

사리불이여! 저 세계를 어찌하여 극락이라 하는 줄 아는가? 거기에 있는 중생들은 아무 괴로움도 없고 다만 온갖 즐거움만 누리므로 극락이라 한다. 그리고 사리불이여! 극락세계에는 일곱 겹으로 된 난간과 일곱 겹 나망과 일곱 겹 가로수가 있는데, 금, 은, 청옥, 수정의 네

가지 보석으로 눈부시게 장식되어 있으므로 그 나라를 또한 극락이라고 한다.

또 사리불이여! 극락세계에는 또 칠보로 된 연못이 있으니, 그 연못에는 여덟 가지 공덕이 있는 물이 가득 찼으며, 연못 바닥은 금모래가 깔려 있다. 연못 둘레에는 금, 은, 유리, 파리 등 네 가지 보배로 이루어진 층계가 있고, 그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역시 금, 은, 유리, 파리, 자거, 적진주, 마노 등으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다. 그 연못 가운데 핀 연꽃은 크기가 큰 수레바퀴 만하여 푸른 꽃에서는 푸른 광채가 나고, 누런 꽃에서는 누런 광채가 나며, 붉은 꽃에서는 붉은 광채가 나고, 흰 꽃에서는 흰 광채가 나서 이를

데 없이 향기롭고 청결하다. 사리불이여!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다.

또 사리불이여! 저 불국토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울리며, 대지는 황금색으로 빛나고 밤낮으로 천상의 만다라 꽃비가 내린다. 그 불국토의 중생들은 항상 이른 아침마다 각각 바구니에 온갖 아름다운 꽃을 담아 가지고 다른 세계에 계시는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침 전에 본국으로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 거닌다. 사리불이여,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다.

또 사리불이여! 그 극락국토에는 항상 가지가지 기이하고 미묘한 여러 빛깔을 가진 백학, 공작, 앵무새, 사리새, 가릉빈가, 공명조 등의 새가 있어서 이 새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로 노래한다. 그들이 노래하면 오근, 오력, 칠보리분, 팔정도 등의 법문을 설하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그 나라 중생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하게 된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저 새들이 죄업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 불국토에는 지옥, 아귀, 축생 등 삼악도가 없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그 불국토에는 삼악도라는 이름도 없는데 하물며 그런 것이 있겠는가? 이 모든 새들은 아미타불께서 법문을 설하기 위하여 화현으로 만든 것이다.

사리불이여! 저 불국토에는 미풍이 불면 보석으로 장식된 가로수와 나망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마치 수많은 음악이 함께 울리는 듯하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이 우러난다. 사리불이여! 극락세계에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다.

사리불이여! 어찌하여 저 부처님을 아미타불이라 하는 줄 아는가? 사리불이여!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없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도 결핍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 한다. 또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백성의 수명이 무량무변 아승기겁이므로 또한 아미타불이라 한다. 사리불이여! 아미타불이 부처가 된지는 벌써 10겁이 지났다.

사리불이여! 저 부처님께서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문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아라한들이다. 그 수는 어떠한 계산으로도 헤아릴 수 없으며, 보살 대중의 수

또한 그러하다. 사리불이여!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다. 또 사리불이여!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다 물러남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 가운데는 일생보처에 오른 이들이 또한 수없이 많아 숫자로도 헤아릴 수 없다. 다만 무량무변 아승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리불이여!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저 세계에 가서 낡기를 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 태어나면 이와 같이 으뜸가는 여러 착한 사람들과 한데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작은 선근이나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날 수 없다.
사리불이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법문을 듣고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레 동안 한결 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우되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에 아미타불이 여러 성인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목숨을 마칠 때에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곧바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

사리불이여! 여래는 이러한 공덕이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이 말을 듣는 자는 마땅히

저 국토에 가서 나기를 발원해야 한다.

사리불이여! 여래가 지금 이와 같이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처럼 동방에도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 등 수없이 많은 여러 부처님이 계셔서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모든 부처님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고 한결 같이 보호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라고 진실하게 말씀하신다.

사리불이여! 남방세계에도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전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등 향하사수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도 또한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너희 중생들은 모든 부처님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고 한결같이 보호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라고 진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서방세계에도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광불, 대명불, 보상불, 정광불 등 향하사수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모든 부처님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고 한결같이 보호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라고 진실

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북방세계에도焰健불, 최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 등 향하사수 여러 부처님이 계시어서 그 부처님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모든 부처님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고 한결같이 보호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라고 진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하방세계에도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 등 향하사수 여러 부처님이 계시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

도록,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모든 부처님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고 한결같이 보호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라고 진실하게 말씀하신다.

사리불이여! 상방세계에도 범음불, 속왕불, 향상불, 향광불, 대염견불, 잡색보화엄신불, 사라수왕불, 보화덕불, 견일체의불, 여수미산불 등 향하사수 여러 부처님이 계시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모든 부처님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고 한결같이 보호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라고 진실하게 말씀하신다.

사리불이여! 무슨 이유로 이 경을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보호하시는 줄 그대는 아는가? 사리불이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이 경을 듣고 받아 지나거나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선남자 선여인은 모두 모든 부처님의 보호를 받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음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그대들은 내 말과 여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

사리불이여! 어떤 사람이 만약 아미타불 세계에 가서 나기를 이미 발원하였거나 지금 발원하거나 혹은 장차 발원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음을 얻어 그

세계에 벌써 태어났거나 지금 태어나거나 혹은 장차 태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신심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극락세계에 가서 나기를 발원하여야 한다.

사리불이여! 여래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듯이 저 모든 부처님도 또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신다. “석가모니불은 매우 어렵고 희유한 일을 위하여 시대가 흐리고, 견해가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생명이 흐린 사바세계의 오탁악세에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능히 알아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일체 세간의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라고 말씀하신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내가 이 오탁악세에서 이 어려운 일을 행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일체 세간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여 마치시니, 사리불과 여러 비구들과 일체 세간의 천인, 아수라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하여 믿고 받아서 예배하고 물러갔습니다.

불설아미타경

佛說阿彌陀經

제1 법회중증분(法會衆證分)

여시아문 일시 불 재사위국 기수급
如是我聞 一時 佛在舍衛國 祇樹給

고독원 여대비구승 천이백오십인구
孤獨園 與大比丘僧 千二百五十人俱

개시 대아라한 중소지식 장로사리
皆是 大阿羅漢 衆所知識 長老舍利

불 마하목건련 마하가섭 마하가전
弗 摩訶目犍連 摩訶迦葉 摩訶迦梅

연 마하구치라 이바다 주리반타가
延 摩訶俱絺羅 離婆多 周利槃陀伽

난타 아난타 라후라 교범바제 빈두
難陀 阿難陀 羅睺羅 憍梵婆提 賓頭

로파라타 가류타이 마하겁빈나 박
盧頗羅墮 迦留陀夷 摩訶劫賓那 縛

구라 아니루타 여시등 제대제자 병
拘羅 阿尼樓駄 如是等 諸大弟子 并

제보살마하살 문수사리법왕자 아
諸菩薩摩訶薩 文殊師利法王子 阿

일다보살 건타하제보살 상정진보살
逸多菩薩 乾陀訶提菩薩 常精進菩薩

여여시등 제대보살 금석제환인등
與如是等 諸大菩薩 及釋提桓因等

무량제천대중구
無量諸天大衆俱

제2 불토의정분(佛土依正分)

이시 불고 장로사리불 종시서방
爾時 佛告 長老舍利弗 從是西方

과십만억불토 유세계 명왈극락
過十萬億佛土 有世界 名曰極樂

기토유불 호아미타 금현재설법
其土有佛 號阿彌陀 今現在說法

제3 보수지연분(寶樹池蓮分)

사리불 피토 하고 명위극락 기국중
舍利弗 彼土 何故 名爲極樂 其國衆

생 무유중고 단수제락 고명극락
生 無 有 衆 苦 但 受 諸 樂 故 名 極 樂

우사리불 극락국토 칠중난순 칠중
又 舍 利 弗 極 樂 國 土 七 重 欄 楯 七 重

라망 칠중향수 개시사보 주잡위요
羅 網 七 重 行 樹 皆 是 四 寶 周 匝 圍 繞

시고피국 명위극락 우사리불 극락
是 故 彼 國 名 曰 極 樂 又 舍 利 弗 極 樂

국토 유칠보지 팔공덕수 충만기중
國 土 有 七 寶 池 八 功 德 水 充 滿 其 中

지저 순이금사 포지 사변계도 금은
池 底 純 以 金 沙 布 地 四 邊 階 道 金 銀

유리파려합성 상유누각 역이금은
琉 璃 頗 黎 合 成 上 有 樓 閣 亦 以 金 銀

유리 파려 자거 적주 마노 이엄식지
琉 璃 頗 梨 砗 磲 赤 珠 瑪 瑙 而 嚴 飾 之

지중연화 대여거륜 청색청광 황색
池 中 蓮 華 大 如 車 輪 青 色 青 光 黃 色

황광 적색적광 백색백광 미묘향결
黃 光 赤 色 赤 光 白 色 白 光 微 妙 香 潔

사리불 극락국토 성취여시공덕장엄
舍 利 弗 極 樂 國 土 成 就 如 是 功 德 莊 嚴

제4 천인공양분(天人供養分)

우사리불 피불국토 상작천악 황금
又 舍 利 弗 彼 佛 國 土 常 作 天 樂 黃 金

위지 주야육시 우천만다라화 기토
爲 地 晝 夜 六 時 雨 天 曼 多 羅 華 其 土

중생 상이청단 각이의극 성중묘화
衆 生 常 以 清 旦 各 以 衣 祴 盛 衆 妙 華

공양타방 십만억불 즉이식시 환도
供 養 他 方 十 萬 億 佛 卽 以 食 時 還 到

본국 반사경행 사리불 극락국토 성
本 國 飯 食 經 行 舍 利 弗 極 樂 國 土 成

취여시공덕장엄
就 如 是 功 德 莊 嚴

제5 금수연법분(金樹演法分)

부차사리불 피국 상유종종기묘잡
復 次 舍 利 弗 彼 國 常 有 種 種 奇 妙 雜

색지조 백학 공작 앵무 사리 가릉빈
色之鳥 白鶴 孔雀 鸚鵡 舍利 迦陵頻

가 공명지조 시제중조 주야육시 출
伽 共命之鳥 是諸衆鳥 晝夜六時 出

화아음 기음 연창오근오력 칠보리
和雅音 其音 演暢五根五力 七菩提

분 팔성도분 여시등법 기토중생 문
分 八聖道分 如是等法 其土衆生 聞

시음이 개실염불 염법 염승 사리불 여
是音已 皆悉念佛 念法 念僧 舍利弗 汝

물위차조 실시죄보소생 소이자하
勿謂此鳥 實是罪報所生 所以者何

피불국토 무삼악도 사리불 기불국토
彼佛國土 無三惡道 舍利弗 其佛國土

상무악도지명 하황유실 시제중조 개
尙無惡道之名 何況有實 是諸衆鳥 皆

시아미타불 욕령법음 선류 변화소작
是阿彌陀佛 欲令法音 宣流 變化所作

사리불 피불국토 미풍 취동 제보항
舍利弗 彼佛國土 微風 吹動 諸寶行

수 급보라망 출미묘음 비여백천중
樹 及寶羅網 出微妙音 譬如百千鐘

악 동시구작 문시음자 자연개생 염
樂 同時俱作 聞是音者 自然皆生 念

불 염법 염승지심 사리불 기불국토
佛 念法 念僧之心 舍利弗 其佛國土

성취여시 공덕장엄
成就如是 功德莊嚴

제6 불덕무량분(佛德無量分)

사리불 어여의운하 피불하고 호아
舍利弗 於汝意云何 彼佛何故 號阿

미타 사리불 피불광명 무량 조시방국
彌陀 舍利弗 彼佛光明 無量 照十方國

무소장애 시고 호위아미타 우사리불
無所障礙 是故 號爲阿彌陀 又舍利弗

피불수명 급기인민 무량무변 아승
彼佛壽命 及其人民 無量無邊 阿僧

지겁 고명아미타 사리불 아미타불
祇劫 故名阿彌陀 舍利弗 阿彌陀佛

성불이래 어금십겁 우사리불 피불
成佛已來 於今十劫 又舍利弗 彼佛

유무량무변 성문제자 개아라한 비시
有無量無邊 聲聞弟子 皆阿羅漢 非是

산수지소능지 제보살중 역부여시
算數之所能知 諸菩薩中 亦復如是

사리불 피불국토 성취여시공덕장엄
舍利弗 彼佛國土 成就如是功德莊嚴

제7 왕생발원분(往生發願分)

우사리불 극락국토 중생생자 개시
又舍利弗 極樂國土 衆生生者 皆是

아비발치 기중 다유일생보처 기수
阿鞞跋致 其中 多有一生補處 其數

심다 비시산수 소능지지 단가이무
甚多 非是算數 所能知之 但可以無

량무변 아승지설 사리불 중생문자
量無邊 阿僧祇說 舍利弗 衆生聞者

응당발원 원생피국 소이자하 득여
應當發願 願生彼國 所以者何 得與

여시제상선인 구회일처
如是諸上善人 俱會一處

제8 수지정행분(修持正行分)

사리불 불가이소선근복덕인연 득생
舍利弗 不可以少善根福德因緣 得生

피국 사리불 약유선남자선여인 문
彼國 舍利弗 若有善男子善女人 聞

설아미타불 집지명호 약일일 약이일
說阿彌陀佛 執持名號 若一日 若二日

약삼일 약사일 약오일 약육일 약칠일
若三日 若四日 若五日 若六日 若七日

일심불란 기인 임명종시 아미타불
一心不亂 其人 臨命終時 阿彌陀佛

여제성중 현재기전 시인종시 심부전도
與諸聖衆 現在其前 是人終時 心不顛倒

즉득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사리불
即得往生 阿彌陀佛 極樂國土 舍利弗

아견시리 고설차언 약유중생 문시
我見是利 故說此言 若有衆生 聞是

설자 응당발원 생피국토

說者 應當發願 生彼國土

제9 동찬권신분(同讚勸信分)

사리불 여아금자 찬탄아미타불 불
舍利弗 如我今者 讚嘆阿彌陀佛 不

가사의공덕지리 동방역유아촉비불
可思議功德之利 東方亦有阿閼卑佛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
須彌相佛 大須彌佛 須彌光佛 妙音

불 여시등 항하사수제불 각어기국
佛 如是等 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

출광장설상 변부삼천대천세계 설성
出廣長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 說誠

실언 여등중생 당신시칭찬불가사
實言 汝等衆生 當信是稱讚不可思

의공덕 일체제불 소호념경 사리불
議功德 一切諸佛 所護念經 舍利弗

남방세계 유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
南方世界 有 日月燈佛 名聞光佛 大焰

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여시등
肩佛 須彌燈佛 無量精進佛 如是等

항하사수제불 각어기국 출광장설상
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 出廣長舌相

변부삼천대천세계 설성실언 여등중생
遍覆三千大千世界 說誠實言 汝等衆生

당신시칭찬불가사의공덕 일체제불
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 一切諸佛

소호념경 사리불 서방세계 유 무량
所護念經 舍利弗 西方世界 有 無量

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광불
壽佛 無量相佛 無量幢佛 大光佛

대명불 보상불 정광불 여시등 항하사
大明佛 寶相佛 淨光佛 如是等 恒河沙

수제불 각어기국 출광장설상 변부삼
數諸佛 各於其國 出廣長舌相 遍覆三

천대천세계 설성실언 여등중생
千大千世界 說誠實言 汝等衆生

당신시칭찬 불가사의공덕 일체제불
當信是稱讚 不可思議功德 一切諸佛

소호념경 사리불 북방세계 유 염견불
所護念經 舍利弗 北方世界 有 猷肩佛

최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
最勝音佛 難沮佛 日生佛 網明佛

여시등 항하사수제불 각어기국
如是等 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

출광장설상 변부삼천대천세계
出廣長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

설성실언 여등중생 당신시칭찬
說誠實言 汝等衆生 當信是稱讚

불가사의공덕 일체제불 소호념경
不可思議功德 一切諸佛 所護念經

사리불 하방세계 유 사자불 명문불
舍利弗 下方世界 有 獅子佛 名聞佛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 여시
名光佛 達磨佛 法幢佛 持法佛 如是

등 항하사수제불 각어기국 출광장
等 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 出廣長

설상 변부삼천대천세계 설성실언
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 說誠實言

여등중생 당신시칭찬불가사의공덕
汝等衆生 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

일체제불 소호념경 사리불 상방세계
一切諸佛 所護念經 舍利弗 上方世界

유 범음불 숙왕불 향상불 향광불
有 梵音佛 宿王佛 香上佛 香光佛

대염견불 잡색보화엄신불 사라수
大猷見佛 雜色寶華嚴身佛 娑羅樹

왕불 보화덕불 견일체의불 여수미산불
王佛 寶華德佛 見一切義佛 如須彌山佛

여시등 항하사수제불 각어기국
如是等 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

출광장설상 변부삼천대천세계
出廣長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

설성실언 여등중생 당신시칭찬
說誠實言 汝等衆生 當信是稱讚

불가사의공덕 일체제불 소호념경
不可思議功德 一切諸佛 所護念經

제10 문법신원분(聞法信願分)

사리불 어여의운하 하고명위일체제
舍利弗 於汝意云何 何故名爲一切諸

불 소호념경 사리불 약유선남자선
佛 所護念經 舍利弗 若有善男子善

여인 문시경 수지자 급문제불명자
女人 聞是經 受持者 及聞諸佛名者

시제선남자선여인 개위일체제불
是諸善男子善女人 皆爲一切諸佛

지소호념 개득불퇴전어아녹다라삼
之所護念 皆得不退轉於阿釋多羅三

막삼보리 시고 사리불 여등 개당신
藐三菩提 是故 舍利弗 汝等 皆當信

수아어 급제불소설 사리불 약유인
受我語 及諸佛所說 舍利弗 若有人

이발원 금발원 당발원 욕생아미타
已發願 今發願 當發願 欲生阿彌陀

불국자 시제인등 개득불퇴전어아녹
佛國者 是諸人等 皆得不退轉於阿釋

다라삼막삼보리 어피국토 약이생
多羅三藐三菩提 於彼國土 若已生

약금생 약당생 시고 사리불 제선남자
若今生 若當生 是故 舍利弗 諸善男子

선여인 약유신자 응당발원 생피국토
善女人 若有信者 應當發願 生彼國土

제11 호찬감발분(互讚勸信分)

사리불 여아금자 칭찬제불불가사의
舍利弗 如我今者 稱讚諸佛不可思議

공덕 피제불등 역칭찬아 불가사의
功德 彼諸佛等 亦稱讚我 不可思議

공덕 이작시언 석가모니불 능위심
功德 而作是言 釋迦牟尼佛 能爲甚

난희유지사 능어사바국토 오탁악
難希有之事 能於娑婆國土 五濁惡

세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중
世 劫濁 見濁 煩惱濁 衆生濁 命濁 中

득아녹다라삼막삼보리 위제중생 설
得阿釋多羅三藐三菩提 爲諸衆生 說

시일체세간난신지법 사리불 당지
是 一 切 世 間 難 信 之 法 舍 利 弗 當 知

아어오탁악세 행차난사 득아낙다라
我 於 五 濁 惡 世 行 此 難 事 得 阿 耨 多 羅

삼막삼보리 위일체세간 설차난신
三 藐 三 菩 提 爲 一 切 世 間 說 此 難 信

지법 시위심난
之 法 是 爲 甚 難

제12 유통보도분(流通普度分)

불설차경이 사리불 급제비구 일체
佛 說 此 經 已 舍 利 弗 及 諸 比 丘 一 切

세간 천인 아수라등 문불소설 환희
世 間 天 人 阿 修 羅 等 聞 佛 所 說 歡 喜

신수 작례이거
信 受 作 禮 而 去

금강반야바라밀경

金 剛 般 若 波 羅 蜜 經

(대한불교조계종 표준본)

제1 법회인유분(法會因由分)

여시아문 일시 불 재사위국 기수급고
如 是 我 聞 一 時 佛 在 舍 衛 國 祇 樹 給 孤

독원 여대비구중 천이백오십인구
獨 園 與 大 比 丘 衆 千 二 百 五 十 人 俱

이시 세존 식시 착의지발 입사위대
爾 時 世 尊 食 時 着 衣 持 鉢 入 舍 衛 大

성 걸식 여기성중 차제걸이 환지본
城 乞 食 於 其 城 中 次 第 乞 已 還 至 本

처 반사흘 수의발 세족이 부좌이좌
處 飯 食 訖 收 衣 鉢 洗 足 已 敷 座 而 坐

제2 선현기청분(善現起請分)

시 장로수보리 재대중중 즉종좌기
時 長 老 須 菩 提 在 大 衆 中 卽 從 座 起

편단우견 우슬착지 합장공경 이백
偏袒右肩 右膝着地 合掌恭敬 而白

불언 희유세존 여래 선호념제보살
佛言 希有世尊 如來 善護念諸菩薩

선부촉제보살 세존 선남자선여인
善付囑諸菩薩 世尊 善男子善女人

발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 응운하주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應云何住

운하항복기심 불언 선재선재 수보
云何降伏其心 佛言 善哉善哉 須菩

리 여여소설 여래 선호념제보살 선
提如汝所說 如來 善護念諸菩薩 善

부촉제보살 여금제청 당위여설 선
付囑諸菩薩 汝今諦聽 當爲汝說 善

남자선여인 발아녹다라삼막삼보리
男子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

심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유연세
心 應如是住 如是降伏其心 唯然世

존 원요욕문
尊 願樂欲聞

제3 대승정종분(大乘正宗分)

불고수보리 제보살마하살 응여시항
佛告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降

복기심 소유일체중생지류 약난생
伏其心 所有一切衆生之類 若卵生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

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비무상
色 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非無想

아개영입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
我皆令人無餘涅槃而滅度之 如是滅

도무량무수무변중생 실무중생득멸
度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得滅

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度者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 有我相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卽非菩薩

제4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

부차수보리 보살어법 응무소주 행
復次須菩提 菩薩於法 應無所住 行

어보시 소위부주색보시 부주성향미
於布施 所謂不住色布施 不住聲香味

촉법보시 수보리 보살응여시보시
觸法布施 須菩提 菩薩應如是布施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不住於相 何以故 若菩薩 不住相布施

기복덕불가사랑 수보리 어의운하
其福德不可思量 須菩提 於意云何

동방허공 가사랑부 불야세존 수보
東方虛空 可思量 不不也世尊 須菩

리 남서북방 사유상하허공 가사랑
提 南西北方 四維上下虛空 可思量

부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무주상보
不不也世尊 須菩提 菩薩無住相布

시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랑 수보리
施福德 亦復如是 不可思量 須菩提

보살 단응여소교주
菩薩 但 應 如 所 教 住

제5 여러실견분(如理實見分)

수보리 어의운하 가이신상 견여래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身相 見如來

부 불야세존 불가이신상 득견여래
不不也世尊 不可以身相 得見如來

하이고 여래소설신상 즉비신상 불
何以故 如來所說身相 卽非身相 佛

고수보리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告須菩提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

제상비상 즉견여래
諸相非相 卽見如來

제6 정신희유분(正信希有分)

수보리 백불언 세존 파유중생 득문
須菩提 白佛言 世尊 頗有衆生 得聞

여시언설장구 생실신부 불고수보리
如是言說章句 生實信不 佛告須菩提

막작시설 여래멸후 후오백세 유지
莫作是說 如來滅後 後五百歲 有持

계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이차
戒修福者 於此章句 能生信心 以此

위실 당지시인 불어일불이불삼사오
爲實 當知是人 不於一佛二佛三四五

불 이종선근 이어무량 천만불소 종
佛 已種善根 已於無量 千萬佛所 種

제선근 문시장구 내지일념 생정신
諸善根 聞是章句 乃至一念 生淨信

자 수보리 여래실지실견 시제중생
者 須菩提 如來悉知悉見 是諸衆生

득여시무량복덕 하이고 시제중생
得如是無量福德 何以故 是諸衆生

무부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 무법상
無復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無法相

역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
亦無非法相 何以故 是諸衆生 若心

취상 즉위착아인중생수자 약취법상
取相 則爲着我人衆生壽者 若取法相

즉착아인중생수자 하이고 약취비법
卽着我人衆生壽者 何以故 若取非法

상 즉착아인중생수자 시고 불응취
相 卽着我人衆生壽者 是故 不應取

법 불응취비법 이시의고 여래상설
法 不應取非法 以是義故 如來常說

여등비구 지아설법 여벌유자 법상
汝等比丘 知我說法 如筏喻者 法尙

응사 하황비법
應捨 何況非法

제7 무득무설분(無得無說分)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득아녹다라삼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得阿耨多羅三

막삼보리야 여래유소설법야 수보리
藐三菩提耶 如來有所說法耶 須菩提

언 여아해불소설의 무유정법명아녹
言 如我解佛所說義 無有定法名阿耨

다라삼막삼보리 역무유정법여래가
多羅三藐三菩提 亦無有定法如來可

설 하이고 여래소설법 개불가취 불
說 何 以 故 如 來 所 說 法 皆 不 可 取 不

가설 비법 비비법 소이자하 일체현
可 說 非 法 非 非 法 所 以 者 何 一 切 賢

성 개이무위법 이유차별
聖 皆 以 無 爲 法 而 有 差 別

제8 의법출생분(依法出生分)

수보리 어의운하 약인 만삼천대천
須 菩 提 於 意 云 何 若 人 滿 三 千 大 千

세계칠보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덕
世 界 七 寶 以 用 布 施 是 人 所 得 福 德

영위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하이
寧 爲 多 不 須 菩 提 言 甚 多 世 尊 何 以

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여래설
故 是 福 德 卽 非 福 德 性 是 故 如 來 說

복덕다 약부유인 어차경중 수지내
福 德 多 若 復 有 人 於 此 經 中 受 持 乃

지사구계등 위타인설 기복승피 하
至 四 句 偈 等 爲 他 人 說 其 福 勝 彼 何

이고 수보리 일체제불 급제불아녹
以 故 須 菩 提 一 切 諸 佛 及 諸 佛 阿 耨

다라삼막삼보리법 개종차경출 수보
多 羅 三 藐 三 菩 提 法 皆 從 此 經 出 須 菩

리 소위불법자 즉비불법
提 所 謂 佛 法 者 卽 非 佛 法

제9 일상무상분(一相無相分)

수보리 어의운하 수다원 능작시념
須 菩 提 於 意 云 何 須 陀 洹 能 作 是 念

아득수다원과부 수보리언 불야세존
我 得 須 陀 洹 果 不 須 菩 提 言 不 也 世 尊

하이고 수다원 명위입류 이무소입
何 以 故 須 陀 洹 名 爲 入 流 而 無 所 入

불입색성향미촉법 시명수다원 수보
不 入 色 聲 香 味 觸 法 是 名 須 陀 洹 須 菩

리 어의운하 사다함 능작시념 아득
提 於 意 云 何 斯 陀 舍 能 作 是 念 我 得

사다함과과부 수보리언 불야세존 하
斯 陀 舍 果 不 須 菩 提 言 不 也 世 尊 何

이고 사다함 명일왕래 이실무왕래
以故 斯陀含 名一往來 而實無往來

시명사다함 수보리 어의운하 아나
是名斯陀含 須菩提 於意云何 阿那

함 능작시념 아득아나함과부 수보
含 能作是念 我得阿那含果不 須菩

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아나함 명위
提言 不也世尊 何以故 阿那含 名爲

불래 이실무불래 시고 명아나함 수
不來 而實無不來 是故 名阿那含 須

보리 어의운하 아라한 능작시념 아
菩提 於意云何 阿羅漢 能作是念 我

득아라한도부 수보리언 불야세존
得阿羅漢道不 須菩提言 不也世尊

하이고 실무유법명아라한 세존 약
何以故 實無有法名阿羅漢 世尊 若

아라한 작시념 아득아라한도 즉위
阿羅漢 作是念 我得阿羅漢道 卽爲

착아인중생수자 세존 불설아득무쟁
着我人衆生壽者 世尊 佛說我得無諍

삼매인중 최위제일 시제일이욕아라
三昧人中 最爲第一 是第一離欲阿羅

한 아부작시념 아시이욕아라한 세존
漢 我不作是念 我是離欲阿羅漢 世尊

아약작시념 아득아라한도 세존 즉불
我若作是念 我得阿羅漢道 世尊 卽不

설 수보리 시요아란나행자 이수보리
說 須菩提 是樂我蘭那行者 以須菩提

실무소행 이명수보리 시요아란나행
實無所行 而名須菩提 是樂我蘭那行

제10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

불고수보리 어의운하 여래 석재연
佛告須菩提 於意云何 如來 昔在燃

등불소 어법유소득부 불야세존 여
燈佛所 於法有所得不 不也世尊 如

래재연등불소 어법실무소득 수보리
來在燃燈佛所 於法實無所得 須菩提

어의운하 보살 장엄불토부 불야세
於意云何 菩薩 莊嚴佛土不 不也世

존 하이고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시
尊 何 以 故 莊 嚴 佛 土 者 卽 非 莊 嚴 是

명장엄 시고 수보리 제보살마하살
名 莊 嚴 是 故 須 菩 提 諸 菩 薩 摩 訶 薩

응여시생청정심 불응주색생심 불응
應 如 是 生 清 淨 心 不 應 住 色 生 心 不 應

주성향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
住 聲 香 味 觸 法 生 心 應 無 所 住 而 生 其

심 수보리 비여유인 신여수미산왕
心 須 菩 提 譬 如 有 人 身 如 須 彌 山 王

어의운하 시신위대부 수보리언 심
於 意 云 何 是 身 爲 大 不 須 菩 提 言 甚

대세존 하이고 불설비신 시명대신
大 世 尊 何 以 故 佛 說 非 身 是 名 大 身

제11 무위복승분(無爲福勝分)

수보리 여항하중소유사수 여시사등
須 菩 提 如 恒 河 中 所 有 沙 數 如 是 沙 等

항하 어의운하 시제항하사 영위다
恒 河 於 意 云 何 是 諸 恒 河 沙 寧 爲 多

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단제항하 상
不 須 菩 提 言 甚 多 世 尊 但 諸 恒 河 尚

다무수 하황기사 수보리 아금실언
多 無 數 何 況 其 沙 須 菩 提 我 今 實 言

고여 약유선남자선여인 이칠보만이
告 汝 若 有 善 男 子 善 女 人 以 七 寶 滿 爾

소항하사수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所 恒 河 沙 數 三 千 大 千 世 界 以 用 布 施

득복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불고
得 福 多 不 須 菩 提 言 甚 多 世 尊 佛 告

수보리 약선남자선여인 어차경중
須 菩 提 若 善 男 子 善 女 人 於 此 經 中

내지수지사구계등 위타인설 이차복
乃 至 受 持 四 句 偈 等 爲 他 人 說 而 此 福

덕 승전복덕
德 勝 前 福 德

제12 존중정교분(尊重正教分)

부차수보리 수설시경 내지사구계등
復 次 須 菩 提 隨 說 是 經 乃 至 四 句 偈 等

당지차처 일체세간천인아수라 개응
當知此處一切世間天人阿修羅皆應

공양 여불탑묘 하황유인진능수지독
供養如佛塔廟何況有人盡能受持讀

송 수보리 당지시인 성취최상제일희
誦須菩提當知是人成就最上第一希

유지법 약시경전소재지처 즉위유불
有之法若是經典所在地處則為有佛

약존중제자
若尊重弟子

제13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

이시 수보리 백불언 세존 당하명차
爾時須菩提白佛言世尊當何名此

경 아등운하봉지 불고수보리 시경
經我等云何奉持佛告須菩提是經

명위금강반야바라밀 이시명자 여당
名為金剛般若波羅蜜以是名字汝當

봉지 소이자하 수보리 불설반야바
奉持所以者何須菩提佛說般若波

라밀 즉비반야바라밀 시명반야바라
羅蜜則非般若波羅蜜是名般若波羅

밀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유소설법
蜜須菩提於意云何如來有所說法

부 수보리 백불언 세존 여래무소설
不須菩提白佛言世尊如來無所說

수보리 어의운하 삼천대천세계 소
須菩提於意云何三天大千世界所

유미진 시위다부 수보리언 심다세
有微塵是為多不須菩提言甚多世

존 수보리 제미진 여래설비미진 시
尊須菩提諸微塵如來說非微塵是

명미진 여래설세계 비세계 시명세
名微塵如來說世界非世界是名世

계 수보리 어의운하 가이삼십이상
界須菩提於意云何可以三十二相

견여래부 불야세존 불가이삼십이상
見如來不不也世尊不可以三十二相

득견여래 하이고 여래설삼십이상
得見如來何以故如來說三十二相

즉시비상 시명삼십이상 수보리 약
卽是非相 是名三十二相 須菩提 若

유선남자선여인 이항하사등신명보
有善男子善女人 以恒河沙等身命布

시 약부유인 어차경중 내지수지사
施 若復有人 於此經中 乃至受持四

구계등 위타인설 기복심다
句偈等 爲他人說 其福甚多

제14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

이시 수보리 문설시경 심해의취 체
爾時 須菩提 聞說是經 深解義趣 涕

루비읍 이백불언 희유세존 불설여
淚悲泣 而白佛言 希有世尊 佛說如

시심심경전 아종석래소득혜안 미증
是甚深經典 我從昔來所得慧眼 未曾

득문여시지경 세존 약부유인 득문
得聞如是之經 世尊 若復有人 得聞

시경 신심청정 즉생실상 당지시인
是經 信心清淨 卽生實相 當知是人

성취제일희유공덕 세존 시실상자
成就第一希有功德 世尊 是實相者

즉시비상 시고 여래설명실상 세존
卽是非相 是故 如來說名實相 世尊

아금득문여시경전 신해수지 부족위
我今得聞如是經典 信解受持 不足爲

난 약당래세 후오백세 기유중생 득
難 若當來世 後五百歲 其有衆生 得

문시경 신해수지 시인즉위제일희유
聞是經 信解受持 是人卽爲第一希有

하이고 차인 무아상인상중생상수자
何以故 此人 無我相人相衆生相壽者

상 소이자하 아상즉시비상 인상중
相 所以者何 我相卽是非相 人相衆

생상수자상즉시비상 하이고 이일체
生相壽者相卽是非相 何以故 離一切

제상 즉명제불 불고수보리 여시여
諸相 卽名諸佛 佛告須菩提 如是如

시 약부유인 득문시경 불경불포불
是 若復有人 得聞是經 不驚不怖不

외 당지시인 심위희유 하이고 수보
畏 當知是人 甚爲希有 何以故 須菩

리 여래설제일바라밀 비제일바라밀
提 如來說第一波羅蜜 非第一波羅蜜

시명제일바라밀 수보리 인욕바라밀
是名第一波羅蜜 須菩提 忍辱波羅蜜

여래설비인욕바라밀 하이고 수보리
如來說非忍辱波羅蜜 何以故 須菩提

여아석위가리왕 할절신체 아어이시
如我昔爲歌利王 割截身體 我於爾時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無我相 無人相 無衆生相 無壽者相

하이고 아어왕석절절지해시 약유아
何以故 我於往昔節節支解時 若有我

상인상중생상수자상 응생진한 수보
相人相衆生相壽者相 應生瞋恨 須菩

리 우념과거 어오백세 작인욕선인
提 又念過去 於五百世 作忍辱仙人

어이소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於爾所世 無我相 無人相 無衆生相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일
無壽者相 是故 須菩提 菩薩 應離一

체상 발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 불
切相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不

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미촉법생심
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위비주
應生無所住心 若心有住 卽爲非住

시고 불설보살심 불응주색보시 수
是故 佛說菩薩心 不應住色布施 須

보리 보살 위이익일체중생 응여시
菩提 菩薩 爲利益一切衆生 應如是

보시 여래설일체제상 즉시비상 우
布施 如來說一切諸相 卽是非相 又

설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 여래
說一切衆生 則非衆生 須菩提 如來

시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是真語者 實語者 如語者 不誑語者

불이어자 수보리 여래소득법 차법
不異語者 須菩提 如來所得法 此法

무실무허 수보리 약보살 심주어법
無實無虛 須菩提 若菩薩 心住於法

이행보시 여인입암 즉무소견 약보
而行布施 如人入闇 則無所見 若菩

살 심부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목 일
薩 心不住法 而行布施 如人有目 日

광명조 견종종색 수보리 당래지세
光明照 見種種色 須菩提 當來之世

약유선남자선여인 능어차경 수지독
若有善男子善女人 能於此經 受持讀

송 즉위여래 이불지혜 실지시인 실
誦 則爲如來 以佛智慧 悉知是人 悉

견시인 개득성취무량무변공덕
見是人 皆得成就無量無邊功德

제15 지경공덕분(持經功德分)

수보리 약유선남자선여인 초일분
須菩提 若有善男子善女人 初日分

이항하사등신보시 중일분 부이항하
以恒河沙等身布施 中日分 復以恒河

사등신보시 후일분 역이항하사등신
沙等身布施 後日分 亦以恒河沙等身

보시 여시무량백천만억겁 이신보시
布施 如是無量百千萬億劫 以身布施

약부유인 문차경전 신심불역 기복
若復有人 聞此經典 信心不逆 其福

승피 하황서사수지독송 위인해설
勝彼 何況書寫受持讀誦 爲人解說

수보리 이요언지 시경 유불가사의
須菩提 以要言之 是經 有不可思議

불가칭량무변공덕 여래위발대승자
不可稱量無邊功德 如來爲發大乘者

설 위발최상승자설 약유인 능수지
說 爲發最上乘者說 若有人 能受持

독송 광위인설 여래실지시인 실견
讀誦 廣爲人說 如來 悉知是人 悉見

시인 개득성취불가량불가칭무유변
是人 皆得成就不可量不可稱無有邊

불가사의공덕 여시인등 즉위하담여
不可思議功德 如是人等 則爲荷擔如

래아 녹다라삼막삼보리 하이고 수
來阿耨多羅三藐三菩提何以故須

보리 약요소법자 착아견인견중생견
菩提若樂小法者着我見人見衆生見

수자견 즉어차경 불능청수독송 위
壽者見則於此經不能聽受讀誦爲

인해설 수보리 재재처처 약유차경
人解說須菩提在在處處若有此經

일체세간천인아수라 소응공양 당
一切世間天人阿修羅所應供養當

지차처 즉위시탑 개응공경 작례위
知此處則爲是塔皆應恭敬作禮圍

요 이제화향 이산기처
繞以諸華香而散其處

제16 능정업장분(能淨業障分)

부차 수보리 선남자선여인 수지독
復次須菩提善男子善女人受持讀

송차경 약위인경천 시인 선세죄업
誦此經若爲人輕賤是人先世罪業

응타악도 이금세인경천고 선세죄업
應墮惡道以今世人輕賤故先世罪業

즉위소멸 당득아녹다라삼막삼보리
卽爲消滅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수보리 아념과거무량아승지겁 어연
須菩提我念過去無量阿僧祇劫於燃

등불전 득치팔백사천만억나유타제
燈佛前得值八百四千萬億那由他諸

불 실개공양승사 무공과자 약부유
佛悉皆供養承事無空過者若復有

인 어후말세 능수지독송차경 소득
人於後末世能受持讀誦此經所得

공덕 어아소공양제불공덕 백분불급
功德於我所供養諸佛功德百分不及

일 천만억분 내지산수비유 소불능
一千萬億分乃至算數譬喻所不能

급 수보리 약선남자선여인 어후말
及須菩提若善男子善女人於後末

세 유수지독송차경 소득공덕 아약
世有受持讀誦此經所得功德我若

구설자 혹유인문 심즉광란 호의불
具說者 或有人聞 心卽狂亂 狐疑不

신 수보리 당지시경의불가사의 과
信 須菩提 當知是經義 不可思議 果

보역불가사의
報亦不可思議

제17 구경무아분(究竟無我分)

이시 수보리 백불언 세존 선남자선
爾時 須菩提 白佛言 世尊 善男子 善

여인 발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 운
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云

하응주 운하항복기심 불고수보리
何應住 云何降伏其心 佛告須菩提

약선남자선여인 발아녹다라삼막삼보
若善男子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

리자 당생여시심 아응멸도일체중생
提者 當生如是心 我應滅度一切衆生

멸도일체중생이 이무유일중생 실멸
滅度一切衆生已 而無有一衆生 實滅

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度者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 有我相

인상중생상수자상 즉비보살 소이자
人相衆生相壽者相 則非菩薩 所以者

하 수보리 실무유법 발아녹다라삼
何 須菩提 實無有法 發阿耨多羅三

막삼보리자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
藐三菩提者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

어연등불소 유법득아녹다라삼막삼
於燃燈佛所 有法得阿耨多羅三藐三

보리부 불야세존 여아해불소설의
菩提不不也世尊 如我解佛所說義

불어연등불소 무유법득아녹다라삼
佛於燃燈佛所 無有法得阿耨多羅三

막삼보리 불언 여시여시 수보리 실
藐三菩提 佛言 如是如是 須菩提 實

무유법 여래득아녹다라삼막삼보리
無有法 如來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수보리 약유법 여래득아녹다라삼막
菩提須若有法 如來得阿耨多羅三藐

삼보리자 연등불 즉불여아수기 여
三菩提者 燃燈佛 則不與我授記 汝

어내세 당득작불 호석가모니 이실
於來世 當得作佛 號釋迦牟尼 以實

무유법 득아녹다라삼막삼보리 시고
無有法 得阿釋多羅三藐三菩提 是故

연등불 여아수기 작시언 여어래세
燃燈佛 與我授記 作是言 汝於來世

당득작불 호석가모니 하이고 여래
當得作佛 號釋迦牟尼 何以故 如來

자 즉제법여의 약유인언 여래득아
者 卽諸法如義 若有人言 如來得阿

녹다라삼막삼보리 수보리 실무유
釋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實無有

법 불득아녹다라삼막삼보리 수보리
法 佛得阿釋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여래소득아녹다라삼막삼보리 어시
如來所得阿釋多羅三藐三菩提 於是

중 무실무허 시고 여래설일체법 개
中 無實無虛 是故 如來說一切法 皆

시불법 수보리 소언일체법자 즉비
是佛法 須菩提 所言一切法者 卽非

일체법 시고 명일체법 수보리 비여
一切法 是故名一切法 須菩提 譬如

인신장대 수보리언 세존 여래설인
人身長大 須菩提言 世尊 如來說人

신장대 즉위비대신 시명대신 수보
身長大 則爲非大身 是名大身 須菩

리 보살역여시 약작시언 아당멸도
提 菩薩亦如是 若作是言 我當滅度

무량중생 즉불명보살 하이고 수보
無量衆生 則不名菩薩 何以故 須菩

리 실무유법명위보살 시고 불설일
提 實無有法名爲菩薩 是故 佛說一

체법 무아무인무중생무수자 수보리
切法 無我無人無衆生無壽者 須菩提

약보살 작시언 아당장엄불토 시불명
若菩薩作是言 我當莊嚴佛土 是不名

보살 하이고 여래설 장엄불토자 즉
菩薩 何以故 如來說 莊嚴佛土者 卽

비장엄 시명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
非莊嚴 是名莊嚴 須菩提 若菩薩 通

달무아법자 여래설명진시보살
達無我法者 如來說名真是菩薩

제18 일체동관분(一體同觀分)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유육안부 여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肉眼不如

시세존 여래유육안 수보리 어의운
是世尊 如來有肉眼 須菩提 於意云

하 여래유천안부 여시세존 여래유
何 如來有天眼不如是世尊 如來有

천안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유혜안
天眼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慧眼

부 여시세존 여래유혜안 수보리 어
不如是世尊 如來有慧眼 須菩提 於

의운하 여래유법안부 여시세존 여
意云何 如來有法眼不如是世尊 如

래유법안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유
來有法眼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

불안부 여시세존 여래유불안 수보
佛眼不如是世尊 如來有佛眼 須菩

리 어의운하 여항하중소유사 불설
提 於意云何 如恒河中所有沙 佛說

시사부 여시세존 여래설시사 수보
是沙不如是世尊 如來說是沙 須菩

리 어의운하 여일항하중소유사 유
提 於意云何 如一恒河中所有沙 有

여시등항하 시제항하소유사수불세
如是等恒河 是諸恒河所有沙數佛世

계 여시영위다부 심다세존 불고수
界 如是寧爲多不 甚多世尊 佛告須

보리 이소국토중 소유중생 약간종
菩提 爾所國土中 所有衆生 若干種

심 여래실지 하이고 여래설제심 개
心 如來悉知 何以故 如來說諸心 皆

위비심 시명위심 소이자하 수보리
爲非心 是名爲心 所以者何 須菩提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
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

불가득

不可得

제19 법계통화분(法界通化分)

수보리 어의운하 약유인 만삼천대
須菩提 於意云何 若有人 萬三千大

천세계칠보 이용보시 시인 이시인
千世界七寶 以用布施 是人 以是因

연 득복다부 여시세존 차인 이시인
緣 得福多不 如是世尊 此人 以是因

연 득복심다 수보리 약복덕유실 여
緣 得福甚多 須菩提 若福德 有實 如

래불설득복덕다 이복덕무고 여래설
來不說得福德多 以福德無故 如來說

득복덕다

得福德多

제20 이색이상분(離色離相分)

수보리 어의운하 불가이구족색신견
須菩提 於意云何 佛可以具足色身見

부 불야세존 여래불응이구족색신견

不不也世尊 如來不應以具足色身見

하이고 여래설구족색신 즉비구족색
何以故 如來說具足色身 卽非具足色

신 시명구족색신 수보리 어의운하
身是名具足色身 須菩提 於意云何

여래가이구족제상견부 불야세존 여
如來可以具足諸相見不不也世尊 如

래불응이구족제상견 하이고 여래설
來不應以具足諸相見 何以故 如來說

제상구족 즉비구족 시명제상구족
諸相具足 卽非具足 是名諸相具足

제21 비설소설분(非說所說分)

수보리 여물위여래작시념 아당유소
須菩提 汝勿謂如來 作是念 我當有所

설법 막작시념 하이고 약인언 여래
說法 莫作是念 何以故 若人言 如來

유소설법 즉위방불 불능해아소설고
有所說法 卽爲謗佛 不能解我所說故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설 시명설법
須菩提 說法者 無法可說 是名說法

이시 혜명수보리 백불언 세존 파유
爾時 慧命須菩提 白佛言 世尊 頗有

중생 어미래세 문설시법 생신심부
衆生 於未來世 聞說是法 生信心不

불언 수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 하
佛言 須菩提 彼非衆生 非不衆生 何

이고 수보리 중생중생자 여래설비
以故 須菩提 衆生衆生者 如來說非

중생 시명중생
衆生 是名衆生

제22 무법가득분(無法可得分)

수보리 백불언 세존 불득아낙다라삼
須菩提 白佛言 世尊 佛得阿耨多羅三

막삼보리 위무소득야 불언 여시여
藐三菩提 爲無所得耶 佛言 如是如

시 수보리 아어아낙다라삼막삼보리
是 須菩提 我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

내지무유소법가득 시명아낙다라삼
乃至無有少法可得 是名阿耨多羅三

막삼보리
藐三菩提

제23 정심행선분(淨心行善分)

부차 수보리 시법평등 무유고하 시
復次 須菩提 是法平等 無有高下 是

명아낙다라삼막삼보리 이무아무인
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 以無我無人

무중생무수자 수일체선법 즉득아낙
無衆生無壽者 修一切善法 則得阿耨

다라삼막삼보리 수보리 소언선법자
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所言善法者

여래설 즉비선법 시명선법
如來說 卽非善法 是名善法

제24 복지무비분(福智無比分)

수보리 약삼천대천세계중 소유제수
須菩提 若三千大千世界中 所有諸須

미산왕 여시등칠보취 유인 지용보
彌山王 如是等七寶聚 有人 持用布

시 약인 이차반야바라밀경 내지사
施 若人 以此般若波羅蜜經 乃至四

구계등 수지독송 위타인설 어전복
句偈等 受持讀誦 爲他人說 於前福

덕 백분불급일 백천만억분 내지산
德 百分不及一 百千萬億分 乃至第

수비유 소불능급
數譬喻 所不能及

제25 화무소화분(化無所化分)

수보리 어의운하 여등물위여래작시
須菩提 於意云何 汝等勿謂如來作是

념 아당도중생 수보리 막작시념 하
念 我當度衆生 須菩提 莫作是念 何

이고 실무유중생여래도자 약유중생
以故 實無有衆生如來度者 若有衆生

여래도자 여래즉유아인중생수자 수
如來度者 如來卽有我人衆生壽者 須

보리 여래설 유아자 즉비유아 이범
菩提 如來說 有我者 則非有我 而凡

부지인 이위유아 수보리 범부자 여
夫之人 以爲有我 須菩提 凡夫者 如

래설 즉비범부
來說 則非凡夫

제26 법신비상분(法身非相分)

수보리 어의운하 가이삼십이상 관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三十二相 觀

여래부 수보리언 여시여시 이삼십
如來不 須菩提言 如是如是 以三十

이상 관여래 불언 수보리 약이삼십
二相 觀如來 佛言 須菩提 若以三十

이상 관여래자 전륜성왕 즉시여래
二相 觀如來者 轉輪聖王 則是如來

수보리 백불언 세존 여아해불소설의
須菩提 白佛言 世尊 如我解佛所說義

불응이삼십이상 관여래 이시세존
不應以三十二相 觀如來 爾時世尊

이설계언

而說偈言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若以色見我以音聲求我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

是人行邪道不能見如來

제27 무단무멸분(無斷無滅分)

수보리 여약작시념 여래불이구족상

須菩提 汝若作是念 如來不以具足相

고 득아녹다라삼막삼보리 수보리

故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막작시념 여래불이구족상고 득아녹

莫作是念 如來不以具足相故 得阿耨

다라삼막삼보리 수보리 여약작시념

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汝若作是念

발아녹다라삼막삼보리자 설제법단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 說諸法斷

멸상 막작시념 하이고 발아녹다라

滅相 莫作是念 何以故 發阿耨多羅

삼막삼보리심자 어법 불설단멸상

三藐三菩提心者 於法 不說斷滅相

제28 불수불탐분(不受不貪分)

수보리 약보살 이만항하사등세계칠

須菩提 若菩薩 以滿恒河沙等世界七

보 지용보시 약부유인 지일체법무

寶 持用布施 若復有人 知一切法無

아 득성어인 차보살 승전보살소득

我得成於忍 此菩薩 勝前菩薩所得

공덕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덕고

功德 須菩提 以諸菩薩 不受福德故

수보리 백불언 세존 운하보살 불수

須菩提 白佛言 世尊 云何菩薩 不受

복덕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 불응탐

福德 須菩提 菩薩 所作福德 不應貪

착 시고 설불수복덕

着 是故 說不受福德

제29 위의적정분(第二十九 威儀寂靜分)

수보리 약유인언 여래약래약거약좌
須菩提 若有人言 如來若來若去若坐

약와 시인 불해아소설의 하이고 여
若臥 是人 不解我所說義 何以故 如

래자 무소종래 역무소거 고명여래
來者 無所從來 亦無所去 故名如來

제30 일합이상분(一合理相分)

수보리 약선남자선여인 이삼천대천
須菩提 若善男子善女人 以三千大千

세계 쇠위미진 어의운하 시미진중
世界 碎爲微塵 於意云何 是微塵衆

영위다부 심다세존 하이고 약시미
寧爲多不 須菩提言 何以故 若是微

진중 실유자 불즉불설시미진중 소
塵衆 實有者 佛則不說是微塵衆 所

이자하 불설미진중 즉비미진중 시
以者何 佛說微塵衆 則非微塵衆 是

명미진중 세존 여래소설삼천대천세
名微塵衆 世尊 如來所說三千大千世

계 즉비세계 시명세계 하이고 약세
界 則非世界 是名世界 何以故 若世

계 실유자 즉시일합상 여래설일합
界 實有者 卽是一合相 如來說一合

상 즉비일합상 시명일합상 수보리
相 則非一合相 是名一合相 須菩提

일합상자 즉시불가설 단범부지인
一合相者 則是不可說 但凡夫之人

탐착기사
貪着其事

제31 지견불생분(知見不生分)

수보리 약인언 불설아견인견중생견
須菩提 若人言 佛說我見人見衆生見

수자견 수보리 어의운하 시인 해아
壽者見 須菩提 於意云何 是人 解我

소설의부 불야세존 시인 불해여래
所說義 不不也世尊 是人 不解如來

소설의 하이고 세존설아견인견중생
所說義 何以故 世尊說我見人見衆生

견수자견 즉비아견인견중생견수자
見壽者見 卽非我見人見衆生見壽者

견 시명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 수보
見 是名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 須菩

리 발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자 어
提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 於

일체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해
一切法 應如是知 如是見 如是信解

불생법상 수보리 소언법상자 여래
不生法相 須菩提 所言法相者 如來

설즉비법상 시명법상
說卽非法相 是名法相

제32 응화비진분(應化非眞分)

수보리 약유인 이만무량아승기세계
須菩提 若有人 以滿無量阿僧祇世界

칠보 지용보시 약유선남자선여인 발
七寶 持用布施 若有善男子善女人 發

보살심자 지어차경 내지사구계등 수
菩薩心者 持於此經 乃至四句偈等 受

지독송 위인연설 기복승피 운하위
持讀誦 爲人演說 其福勝彼 云何爲

인연설 불취어상 여여부동 하이고
人演說 不取於相 如如不動 何以故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불설시경이 장로수보리 급제비구비
佛說是經已 長老須菩提 及諸比丘比

구니 우바새우바이 일체세간천인아
丘尼 優婆塞優婆夷 一切世間天人阿

수라 문불소설 개대환희 신수봉행
修羅 聞佛所說 皆大歡喜 信受奉行

우리말 관세음보살보문품

(운허 스님 번역)

한때에 무진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 메고 오른쪽 무릎
을 땅에 꿇으며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
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무량백천만억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뇌를 당할 때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일컬으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하고 모두
고뇌에서 해탈케 하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드는 자는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니, 이는 이 관세음보살
의 위신력 때문이니라.

혹은 큰 물에 떠나려 가게 되더라도 그
명호를 일컬으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며, 또 혹은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자거·마노·산호·호박·진주 등
보배를 구하고자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불어 그들이 탄 배가 나찰들의
나라로 표착했더라도 그 중에 혹 한 사람이
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컫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모두 나찰의 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만일 흥기로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컬으면 저들이 잡은 흥기는 곧 조각조각으로 부서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혹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찬 야차·나찰 등 악귀들이 사람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컫는 것을 들으면 그 모든 악귀들이 능히 악한 눈으로 보지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 있으랴.

또 어떤 사람이 설사 죄가 있거나 없거나 큰 칼을 씌우고 고랑에 채워지고 몸이 사슬에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컬으면 이것들이 모두 다 부서져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약 삼천대천국토에 흥기를 가진 원수와 도적들이 가득 찼는데 그 중에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많은 상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컬으라. 이 보살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게 해주리니, 그대들이 만약 그 명호를 일컬으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일제히 소리를 내어 ‘나무관세음보살’ 하고 그 이름을 일컬음으로써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마하살의 위신력이 거룩하기가 이와 같으니라.

만약에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며, 만약에 미워하고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며, 또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큰 위신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바가 많으니, 그러므로 중생이 마땅히 항상 마음에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사내아이 있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지닌 사내아이를 낳을 것이며, 딸 낳기를 원하면 곧 단정하고 상호를 갖춘 딸을 낳으리니 그는 숙세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만약에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이 모두 마땅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무진의여, 만약 어떤 사람이 육십이억 항하사 보살의 명호를 받들고 또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침구·의약으로 공양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이 얻을 바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무진의가 말씀드렸다.

“심히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고 한 때라도 예배하고 공경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꼭 같아 차이가 없어서 저 백천만억 겁에 이르도록 다함이 없으리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들어 지니면 이와 같이 무량무변한 복덕을 얻느니라.”

무진의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노니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시며 방편력은 또한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선남자여, 어떤 국토의 중생 중에 마땅히 부처의 몸으로써 제도할 자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곧 벽지불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성문의 몸으로써 제도할 자는 곧 성문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범왕의 몸으로서 제도할 자는 곧 범왕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제석의 몸으로써 제도할 자는 곧 제석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자재천의 몸으로써 제도할 자는 곧 자재천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대자재천의 몸으로써 제도할 자는 곧 대자재천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천대장군의 몸으로써 제도할 자는 곧 천대장군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비사문의 몸으로써 제도할 자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소왕의 몸으로써 제도할 자는 곧 소왕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장자의 몸으로써 제도할 자는 곧 장자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거사의 몸으로써 제도할 자는 곧 거사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재관의 몸으로써 제도할 자는 곧 재관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바라문의 몸으로써 제도할 자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의 몸으로써 제도할 자는 곧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장자·거사·재관·바라문의 부녀의 몸으로써 제도할 자는 곧 부녀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동남·동녀의 몸으로써 제도할 자는

곧 동남·동녀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천·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인비인 등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곧 이들 모두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집금강신의 몸으로써 제도할 자는 곧 집금강신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노니시며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하여야 하나니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려움과 급한 환난 중에서 능히 두려움을 없게 해주시는 까닭에 사바세계

에서는 모두 관세음보살을 일컬어 두려움
없음을 베푸시는 성자라고 부르느니라.”

무진의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겠나이다.”

하고 목에 걸었던 백천량금 값어치가
있는 온갖 보주와 영락을 끌러 바치면서
아뢰었다.

“어지신 이여, 이 진보영락의 법시를
받으소서.”

그때에 관세음보살이 이를 받으려 하지 않
으니 무진은 다시 관세음보살께 아뢰었다.

“어지신 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서.”

그때에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이제 이 무진의보살과 사부대중과 천·
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
긴나라·마후라가·인비인 등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이에 관세음보살은 사부대중과 천·용·
인비인 등을 불쌍히 여기사 곧 그 영락을
받아서 두 뭇으로 나누어 한 뭇은 석가모니
불께 바치고 한 뭇은 다보불탑에 바쳤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자재한
신통력을 가지고 사바세계를 노니시느니라.”

그때 무진의 보살이 계송으로 물었다.

『묘상이 구족하신 세존이시여,
제가이제 다시금 묻사옵나니
불자를 어찌하온 인연으로써
관세음 보살이라 하시나이까.

묘상이 구족하신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대답하셨다.
너는이제 들으라 관음의행이
곳곳에서 알맞게 응해주심을

넓고깊은 서원은 바다와같이
헤아릴수 없는점을 지내오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모시는동안
청정하온 큰원을 세웠더니라.

내이제 너를위해 설해주리니
명호라도 듣거나 친견하거나
마음으로 섬기고 지성다하면
이세상 모든고통 벗어나리라.

만약에 어떤이가 해침을받아
불구덩에 떠밀려 떨어진대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불구덩이 변하여 못이되리라.

어찌다 바다에서 풍파에밀려
용과고기 귀신들의 난을만나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험한물결 속에서도 무사하리라.

높고높은 수미산 봉우리에서
사람에게 떠밀려 떨어진대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해와같이 허공에 머물게되리.

어찌다가 악인에게 쫓기게되어
금강산 험한골짜기 떨어진대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터럭끝 하나라도 상처않으리.

원수나 도적들이 둘러싸고서
제각기 칼을들고 해치려해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원적들 모두가 자비심내리.

나라법에 걸려서 고통받거나
형벌을 당하여 죽게되어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흥기가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큰칼쓰고 깊은옥에 갇혔더라도
손과발에 고랑차고 묶였더라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어김없이 시원스레 풀려나리라.

어떤사람 이몸을 해코저하여
주술이나 가지가지 독약을써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해와독이 본인에게 되돌아가리.

어찌다 악한나찰 만난다거나
독한용과 아귀떼에 둘러싸여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언제라도 저들이 해치못하리.

사나운 맹수들에 에워싸여서
날카로운 이와발톱 소름끼쳐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먼곳으로 뿔뿔이 달아나리라.

살모사와 독사와 쏘는독충이
불꽃같은 독기를 뿜을지라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소리따라 스스로 흠어지리라.

먹구름에 천둥일고 번개가치며
우박이 쏟아지고 큰비내려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즉시에 구름건고 활짝개이리.

중생들 가지가지 곤액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이 핍박하여도
관세음의 신묘한 지혜의힘이
이세상 온갖고통 건져주리라.

가지가지 신통의힘 구족하시며
지혜의 온갖방편 널리다으사
시방세계 넓고넓은 모든국토에
거룩하신 그몸을 두루나투네.

가지가지 나쁜곳의 여러중생들
지옥아귀 축생에 이르기까지
나고늙고 병들고 죽는고통을
차츰차츰 모조리 없애주나니.

진실한 관이시며 청정관이며
넓고넓은 큰지혜의 관이시오며
비관이며 다시또한 자관이시니
저희들이 어느때나 우러릅니다.

티없이 거룩하온 청정한광명
지혜의해 모든어둠 부쉬주시며
능히모든 재앙을 훌어버리고
모든세간 남김없이 밝혀주시네.

자비하신 몸의행은 우뢰와같고
자애로운 거룩한뜻 큰구름이라
감로의 범비를 뿌려주시어
활활타는 번뇌의불 꺼버리시네.

송사하여 관청에 이룰때에나
두려울사 목숨건 전쟁터라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모든원수 모든원한 다사라지리니

생각할수 없사온 묘음관세음
하늘땅에 가득하온 범음해조음
세간음성 그모두에 뛰어나시니
이까답에 어느때나 염하옵니다.

생각하고 생각함에 의심말지라.
거룩하신 그성인 관음보살은
고통과 번뇌와 죽을액난에
중생들 의지하고 믿을바로다.

일체의 모든공덕 구족하시고
자비하신 눈으로 중생살피고
지니신복 바다같이 그지없으니
마땅히 지성다해 경배할지라.』

그때에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
보살품의 자재한 업과 보문으로 나투
시는 신통력을 듣는다면 마땅히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않을 줄로 아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에
회중의 팔만사천 중생이 모두 무등등
아낙다라삼막삼보리심을 발했느니라.

우리말 무상계

무상계는

열반으로 들어가는 요긴한 문이며
고통바다 건너가는 자비의 배이니
부처님도 이 계로써 열반에 들어가셨고
중생들도 이 계로써 고통바다 건너가나니

금일 ○○영가시여, 이제 오늘
육신에서 벗어나니
신령스런 마음자리 뚜렷이 드러나고
부처님의 위없는 청정계를 받으오니
어찌 다행 아니리오.

금일 ○○영가시여,
겁의 불길 활활 타면
대천세계 무너지고
수미산도 닳아지고
큰 바다도 마르거늘
하물며 이 몸의 생로병사
근심 걱정 슬픔 고뇌
어찌 남아 있으리오.

금일 ○○영가시여,
살과 뼈는 흙으로 돌아가고,
피와 땀은 물로 돌아가며,
몸의 따스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던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서,

사대요소 제각기로 흩어지리니
금일 영가의 몸이 어디 있다 하오리까.

금일 ○○영가시여,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사대로 이루어진
영가의 몸 헛되고도 거짓된 것이오니
애석해 할 이유 있으리오.

금일 ○○영가시여, 그대는
시작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업이 생기고,
행업으로 말미암아 의식이 생기며,
의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생기고,
명색으로 말미암아 육입이 생기며,

육입으로 말미암아 감촉이 생기고,
감촉으로 말미암아 느낌이 생기며,
느낌으로 말미암아 갈애가 생기고,
갈애로 말미암아 집착이 생기며,
집착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생기고,
존재로 말미암아 태어남을 받게 되며,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고 죽고 근심 고뇌가 생겨나네.

그러므로
무명이 사라지면 행업이 사라지고,
행업이 사라지면 의식이 사라지며,
의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면 육입이 사라지며,

육입이 사라지면 감축이 사라지고,
감축이 사라지면 느낌이 사라지며,
느낌이 사라지면 갈애가 사라지고,
갈애가 사라지면 집착이 사라지며,
집착이 사라지면 존재가 사라지고,
존재가 사라지면 태어남이 사라지며,
태어남이 사라지면
늙고 죽고 근심 고뇌가 사라지네.

모든법은 본래부터 항상 적멸의 모습이니
이 도리를 잘 행하면
오는 세상 부처되리라.

모든행은 무상하니
생겨나고 사라지네.
생멸이 다해지면
다름아닌 적멸이네.

부처님께 귀의하소서.
가르침에 귀의하소서.
스님들께 귀의하소서.

나무 과거보승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금일 ○○영가시여,
헛것으로 이루어진 허망한 몸 훌훌 벗어
신령스런 마음자리 뚜렷이 드러나고
부처님의 가장높은 청정계를 받았으니
이 어찌 쾌활하고 쾌활하지 않으리오.
달마조사 오신 뜻이 너무나도 당당하니
본래 맑은 마음자리 자성의 고향이라.
묘한 본체 맑디맑아 일정처소 없건마는
산하대지 두두물물 청정법신 드러나네.

6장 법회의례

- 1. 정기법회 360
- 2. 연등법회 377
- 3. 문병기도법회 383

정기법회

정기법회 순서

1. 삼귀의 361
2. 우리도 부처님같이 362
3. 우리말 반야심경 363
4. 발원문 366
5. 청법가 368
6. 법회염송 369
7. 보현행원 374
8. 사홍서원 375
9. 봉선사 예찬 376

삼 귀 의

최영철 작곡
서창업 편곡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 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 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 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맹석분 작사
이당철 작곡



이 들은 한순간 그 대로가빛이라네
원 망은 한순간 모 든 것이 은혜라네



바 른생각바른 말 바 - 른 - 행 동 이
지 족하는마 - 음 감 사 하 는마 음 이



무 명을 거-두고 우 주를 밝-히 는
나 누는 기-쁨을 맛 볼수 있--는



이 제는 가슴깊 이 깨 달을수있다네 정진
이 제는 여--실 히 깨 달을수있다네 정진



하 세 정진 하 -세 물러남이없는정 - 진 우리
하 세 정진 하 -세 물러남이없는정 - 진 우리



도 부-처- 님 같이 우 리도부처님같이
도 부-처- 님 같이 우 리도부처님같이

우리말 반야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안 이 비 설 신 의도 없고,
색 성 향 미 촉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늡고 죽음도 늡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 집 멸 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3번)

발 원 문

도솔천을 내려와서 쌍림열반 들기까지
팔상성도 나타내신 자비하신 부처님께
지심귀의 하옵니다.

세상살이 물결속에 명리에욕 눈가리워
익힌언행 삼업되고 본래성격 운명이나
대승진리 깊이믿고 삼보전에 원력세워
합장하고 독경하며 불보살님 찬탄하세

대다라니 지닌이몸 신통갖춘 창고이니
중생살이 그가운데 반야지혜 드러내어
말과생각 분명하고 몸과마음 청정하며
좋은스승 항상만나 최상진리 체득하리

진실하온 말한마디 믿음심는 씨앗이니
큰절하고 참회하여 묵은빛을 모두갓고
좋은인연 맺는데는 보시공덕 제일이니
이웃향한 자비실천 어느하나 빠뜨릴까

가이없는 저허공은 가는끝이 있을망정
오늘세운 이발원을 쉬임없이 실천하여
아미타불 계신곳에 왕생하기 원하오니
시방삼세 불보살님 자비로서 살피주소서

청 법 가

이광수 작사
이찬우 작곡



덕 높으 신 스 - 승님 사 자좌 에 오 르사 --
덕 높으 신 법 - 사님 대 법좌 에 오 르사 --



사 자 후 를 합 - 소서 감 로 - 법 을 주 - 소서
법 을 설 하 읊 - 소서 맘 을 씻 어 주 - 소서



옛 인연 을 이 어서 새 인연 을 맺 - 도록
모 두 발 심 하 여서 같 이 성 불 하 - 도록



대 자 - 비 를 베 - 푸사 법 을 설 하 읊 - 소서
대 원 - 력 을 퍼 - 시사 길 을 인 도 하 - 소서

법회염송

함께 : 오늘 법회에 모인 저희 불자들은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함께 가게 될 이 자리에서
마음 다해 서원하옵니다.

스님 :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옵니다.

불자 :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께
눈앞에 계신 듯 큰 믿음으로
청정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끝없이 예경하옵니다.

스님 : 여래의 공덕을 찬탄하옵니다.
불자 : 시방삼세의 모든 불보살님께
미묘한 음성과 한량없는 말로써
미래세가 다하도록 여래의 공덕을
법계에 두루 찬탄하옵니다.

스님 : 널리 부처님께 공양하옵니다.
불자 :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 중의 으뜸인 법공양으로
보현행원의 원력을 가지고
한량없이 공양하옵니다.

스님 : 업장을 참회하옵니다.
불자 : 옛부터 씬 없이 지어온
우리들의 삼독심을 뒤바꾸어

청정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모든 불보살님께 참회하옵니다.

스님 : 부처님의 공덕을 기뻐하옵니다.
불자 : 부처님께서 이루신 선근 공덕과
모든 중생의 티끌만한 공덕을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옵니다.

스님 :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불자 : 시방삼세의 모든 불보살님께서
몸과 말과 생각의 여러 방편으로
중생에게 설법해 주시길 청하옵니다.

스님 : 세상에 오래 머무시길 청하옵니다.
불자 : 열반에 드시려는 부처님과

유학 무학의 모든 선지식께
일체 중생이 이익 되도록
함께 머무시길 청하옵니다.

스님 :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불자 : 부처님께서 발심 정진하여
온갖 고행과 신통 변화로
근기 따라 중생 구제하심을
다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스님 :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불자 : 보리의 뿌리인 온갖 중생을
대자비로 섬기고 받들어
평등히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스님 : 모든 공덕을 회향하겠습니다.

불자 : 위와 같은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향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하겠습니다.

함께 : 자비와 지혜의 부처님,
저희들은 이와같이 심없는 수행정진으로
연기법을 확실히 체득하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상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겸손하고 선량하나 무력하지 않은 사람,
유능하나 오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우리 시대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선지식으로 거듭 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보현행원

정운문 작사
정민섭 작곡



내 이제 두손-모아 청하옵나-니
내 이제 었드-러서 원하옵나-니



시방 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영겁토록 열반-에 들지 맙-시-고



두 눈어 둔 이 내 몸 굽어살 피-사
이 세상의 중생들 굽어살 피-사



위-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삼계 화택 심한-고난 구원하-소-서



허 공계와 중생-계가 다 할지라-도
허 공계와 중생-계가 다 할때까-지



오늘-세운 이서-원은 끝없사-오-리
오늘-세운 이서-원은 끝없사-오-리

사홍서원

최영철 작곡
서창업 편곡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봉선사 예찬

월운스님 작사
차은선 작곡



광 룡 의 우 거 진 숲 맑 은 바 람 뿜 어 내 고
영 욱 의 역 사 속 에 우 리 의 것 지 켜 왔 고
구 름 이 흘 러 간 들 허 공 이 야 변 할 소 나



오 백 년 범 종 소 - 리 세 상 근 심 씻 어 주 는 곳
어 두 운 이 세 상 - 에 밝 은 빛 을 보 여 주 는 곳
천 만 번 죽 더 라 - 도 불 국 토 를 기 약 하 는 곳



아 아 아 그 - 이 름 봉 선 사
아 아 아 그 - 이 름 봉 선 사
아 아 아 그 - 이 름 봉 선 사



우 리 들 의 큰 복 발 영 광 되 소 서
우 리 들 의 큰 스 승 영 원 하 소 서
우 리 들 의 큰 원 력 충 만 하 여 라

연등법회

(지역 단체)

연등법회 순서

1. 삼귀의 361
2. 천수경 54
3. 관음정근 114
4. 연등법회 발원문 378
5. 반야심경 46
6. 경전공부(만족이 제일의 부) 381
7. 공지사향
8. 사홍서원 375

연등법회 발원문

(지역 단체)

자비하신 부처님

오늘 저희들은 ○○년 ○○월

○○연등법회를

○○○불자님 댁에서 갖습니다.

자리를 함께 한 저희 불자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늘 함께 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이 세운 원력과 실천이

다 이루어지도록 보살피 주소서.

모든 번뇌와 고난에서 벗어나

걸림없는 큰 지혜 드러나게 하소서.

저희들은 부처님 원력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일과기도를 하며 수행을 하고

가족 이웃과 서로 돕고 사랑하며

부지런히 선행을 닦아 가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 한 가정을 이루고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며 사는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은덕이 충만하도록

거듭 축원드립니다.

이들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신심이 더욱 두터워져

하는 일마다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가운이 날로 번창하여

복과 덕이 세월따라 늘어나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저희 연등법회에 참석한 가족들은

함께 마음 모아 부처님께 발원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위합니다.

만족이 제일의 부

선남자 선여인이여 모든 고뇌에서 해탈
하려면 마땅히 만족함을 알아 생활할
것이니 분수를 알아 분수를 지키는 것이
즐겁고 안온하게 되는 길이니라.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땅 위에 누웠
더라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지만 만족함
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상에 있더라도
마음에 차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그는 곧 부자이며 만족을 모르는 이는 항상
다섯 가지 욕심에 끌리어 살아감으로 만족

할 줄 아는 이가 불쌍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知足(知足)을 제일의 부(富)라
하느니라.

(여래유교경)

문병기도법회

문병기도법회 순서

1. 마음의 평화와 행복 384
2. 약사정근 385
3. 문병쾌유 발원문 386

마음의 평화와 행복

집에 불을 물로 꺼 버리듯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슬픔이 이는 것을 재빨리 꺼 버린다. 바람이 숨을 저 멀리 멀리 날려보내듯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번뇌의 화살을 뽑아 버린다. 비탄과 고뇌와 불만에 찬 화살을 뽑아 버린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는 일 없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슬픔을 극복한 다음에는 더없는 축복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숫타니파타)

약사정근

나무 동방만월세계 십이상원
『약사여래불』……

십이대원으로 중생을 건지시니
한결같은 자비심에 한치의 빈틈도 없네.
뿌리깊고 뒤집힌 범부의 번뇌병은
약사여래 못만나면 죄업소멸 어렵도다.

문명쾌유 발원문

어진 의사이신 약사여래 부처님
항상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병마로부터 지금까지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불자가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아픔에 시달리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몸은 비록 병들어 고통받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병마의 업연을
빨리 물리치고
완쾌되어 선행을 닦고자 합니다.
약사여래 부처님
○○○불자가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일 많이 하며
병없이 즐겁고 착실하게 살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의사이신 약사여래 부처님
○○○불자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크나큰 믿음의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은 언제나 ○○○불자가

약사여래 부처님 원력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약사여래 부처님
다시 바라옵니다.
저희들 함께 병 없이 건강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불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약사여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7장 발원문

1. 행복한 가정 발원문 390
2. 사업번창 발원문 392
3. 공양 발원문 395
4. 학업성취 발원문 396
5. 생일 발원문 399
6. 진급 승진 발원문 402
7. 극락왕생 발원문 405

행복한 가정 발원문

자애로우신 부처님, 여기 다접생의 인연으로 부모 형제로 만나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항상 삼보를 믿고 따르며 보살도를 닦는 가운데 서로를 소중히 아끼며 화목하게 생활하려 합니다.

세간의 큰 복전이신 부처님, 저희 가족들의 신심이 날로 깊어져 집안이 편안하고 가족이 하는 모든 일들이 크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슴 속에 지닌 원력 크게 빛나 가는 길마다 막힘이 없고 하는 일마다 순조로우며 만나는 사람마다 착한 뜻 함께 하여 머물고 가는 곳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부처님, 저희 가족에게 더 큰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십시오.

기쁨과 보람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저희 가정이 날로 번성하고 복과 덕을 닦아가도록 보살펴 주소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사업번창 발원문

시방삼세 영원하사 온 국토 온 중생을
보리도로 성숙시키시는 대자비 세존이시여,
오늘 저희들의 일심 기원을 자비로써
받아들여 주옵소서.

○○○불자는 금일에 사업을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는 동안
불보살님의 지극하신 은덕에 감사드리
옵니다.

바라옵건데, 불자가 나날이 봉사와 정진
을 다하여 사회의 수요를 보다 참되게
충족시켜 문화 향상에 기여하며 보다

우수한 수요 기여를 개발하고 온 겨래와
인류에게 향상된 기쁨과 편의를 공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와 세계에 드높은 봉사 헌신과 문화
창조의 기여는 나라와 인류에 보다 높은
기여로 축적되고 그 성과는 보살도를
이루고 불국토를 가꾸는 거룩한 공덕으로
회향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간절히 기원하옵건대, 금일 이후
불자의 믿음은 더욱 청정하고 심신은
강건하며 가내 화평하고 복덕이 왕성하여
뜻하는 일마다 부처님의 가호가 항상
함께 하여지이다.

온 이웃 온 형제 함께 찬탄하고 나아가

겨레와 인류를 위한 큰 뜻을 이루며
향하는 길마다 상서가 일고 만나는 사람
마다 보리심을 내어 일체 중생 모두 함께
무상도를 이루어지이다.

공양 발원문

한 방울의 물에도
부처님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이 몸을 길러
몸과 마음을 바로 하고
청정하게 살겠습니다.

학업성취 발원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두루 살피 주시는 제불
보살님이시여, 자비의 문을 열어 구원의
실상을 밝혀 주소서.

오늘 ○○시험에 임하는 사랑하는 ○○
○불자는 부처님의 위없이 높은 위신력
을 믿사오니 노력하고 애쓴 만큼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보살피 주소서. 참된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보살의 구도
정신을 본받아 학업에 열중하도록 길을
열어 주소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품에 안겨 실력을 연마해 온 ○○○불자
에게 크나큰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니, 끝없는 옛적부터
삼업이 청정치 못하여 지어 온 모든 악업
을 참회하오니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게
하시고 청정한 보살의 길에 들어가 지혜가
완성되는 날까지 물러남 없이 이웃을
위하여 베풀며 사는 불자가 되도록 인도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제불 보살님이시여, 시험에 임하는 사랑
하는 ○○○불자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원과 관세음
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총명한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다 함께 윤희의 바다를 건너 불국도에
이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간절히 기도하나니
이 공덕을 널리 회향할 수 있도록
감응하소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생일 발원문

일체 중생의 성스러운 귀의처이신
부처님, 우러러 생각하오니 밝은 빛이
온 누리를 두루 비추사 저희들로 하여금
크신 가호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고
있사옵니다.

오늘 ○○○불자의 생일을 맞이하여
삼보께 공양하옵고 지극한 정성으로 발원
하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불자의
보람된 삶을 살아가려는 가극한 성심을
굽어 살피시어 그의 앞길에 나타나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슬기와 용기

그리고 보살의 길을 견도록 덕성과 복락을
증진시켜 주시옵소서.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가장 높으신 부처님,
영겁으로 이어져 내려온 마음의
연령은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 ○○○불자가 이생의 나이 한 살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삼보를 믿는 마음 더욱 두터워져서
지혜는 자라고 수명은 늘어나서
항상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은혜로
정법의 등불을 밝게 켜는 전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말법이오나 ○○○불자는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 삼보를 믿고

받드오니 모두 부처님의 원력일 따름입니다.

○○○불자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의 마음 속에 원하는 일들
다 이루어지고
집안 식구의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올바르며
보람되고 기쁜 일이 더욱 많아지기를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여러 불보살께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진급 승진 발원문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으시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시어 마침내 대각을
성취하사 중생 위해 팔만사천 감로법문을
열어 주신 부처님.

오늘 ○○○불자는 부처님의 원만 구족하고
자비하신 공덕의 위신력을 입어 더욱 새롭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시절인연을

눈앞에 두고 있기에

삼가 삼보전에 아뢰나이다.

이 세상에서 겨자씨만한 땅이라도 부처님과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땀 흘리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기도정진하고
땀 흘리는 ○○○에게 큰 힘과 복덕을
내리시어 제가 발원하는 이 원이 삼보님의
호념하심과 위신력으로 성취의 기쁨과
회향의 법락을 누리게 하소서.

시방삼세에 항상 계시어 온 중생의
복전이신 부처님,

저희들의 간곡한 발원을 굽어 감응하시어
회사와 나라에 더욱 더 필요한 큰 일꾼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비의 보살이 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의 귀의처이신 부처님,
○○○에게 올바른 지혜와 불퇴전의

용기를 주시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일을 원만히 수행하여 중생제도의
큰 불사에 이바지하는 공덕을 세우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공덕 널리 회향하오니
법계의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극락왕생 발원문

일천 강에 달 그림자 금빛 물결 이루고
메아리 소리를 응해 골을 타고 내리듯
중생의 지극 정성 사무쳐 간절하면
언제 어디서나 감응해 오시는 부처님.
다겁생 이래로 인연이 두터워
한 가족으로 만났으나 또 다른 인연의
흐름을 막지 못해 이렇게 아쉬움 남기고
우리의 곁을 떠나 영원의 세계로 향했으니
텅빈 가슴을 안고 슬픔에 잠겨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위로하여야 하겠습니까?

여기 ○○○불자를 여의고
고통스러워하는 ○○○불자와 그 가족
모두에게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고 만나면
이별하는 것이 우주의 진리인 것을
○○○영가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이기 위해 먼저 가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와서 못다한 일들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을 훌훌 털어버리고
아미타부처님의 대자대비
월력 바다의 연꽃 속에 태어나서
무생법인의 법락을 누리소서.
그리하여 남은 유족과 권속 친지들

건강하게 뜻하는 일 다 잘 이루어지고
부처님 법의 문에 나아가
돈독한 신심을 가꿔
위없는 깨침의 언덕에 이르도록
음덕을 베풀어 주소서.
다시 한번 왕생극락 하시기를 발원하오니
감응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8장 찬불가

1. 수경가 410
2.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411
3. 해탈의 기쁨 412
4. 관세음의 노래 413
5. 사십구재의 노래 414
6. 자비방생의 노래 415
7. 연등 416
8. 불교도의 노래 417

수 경 가

월은스님 작사
한정일 작곡



이 - 제 거 룩한 법 - 문 들 잡고 뜻 - 이 활 - 짝 열 - 리니



본 래의 달 여 전히 하늘에 있음 을 알 겠 나 이 다 -



일 로부터 인 생 사에 한 - 점 의 - 심 없 사 오 니



바 라 읊 건 데 굳 게 지 너 영 원 히 또 렛 또 렛



하 여 지 이 다 마 - 하 반 - 야 바 - 라 밀



마 하 반 야 - 바 라 밀 - 마 하 반 야 - 바 라 밀 -

부 처 님 께 귀 의 합 니 다

우성 작사
외국 곡



부 처 님 전 에 모 든 것 을 바 처 그
부 처 님 전 에 향 불 을 울 리 어 그



뜻 을 따 르 오 니 길 을 열 으 시 고
말 씬 따 르 오 니 문 을 열 으 시 고



어 두 운 밤 에 거 룩 하 고 밝 은 영
혜 매 는 밤 에 넓 고 도 길 으 신 자



원 한 빛 이 되 어 길 을 밝 히 소 서
비 로운 그 손 길 배 풀 어 주 소 서

해탈의 기쁨

김승은 작사
오인혁 작곡

mp

한 생 각마로돌- 러 얽힌 번 뇌끓 고보 니
윤 회 의고해에- 서 피안 언 덕이 르르 니

mf

천상 천 하 넓은우- 주 결릴 것 이하나없- 고
어두웠 던 나의마- 음 한순 간 에 밝아지- 고

mp

평 등 한성품속- 에 너와 내 가따로없- 네
본 래 의천진면- 목 진 실 하 게들어나- 네

f

대- 자재 -유아독 존 바로 이 것인 - 것 을
위- 없는 -임의진 리 영원 한 빛가 운데 에

mf *rit.*

해 탈 의참된기-쁨 사바 세 계가득하- 네
열 반 의대합창- 이 온누 리 에가득하- 네

관세음의 노래

법정스님 작사
김동진 작곡

삼 계의 중-생-을 천 안으 로
님 이어 나-투소서 그 모습 -

살-피시고 고 해의 중-생-을
보-이소서 어 두운 이 세상-에

천수로써 건지시 는 자 비하 신
그-모습보이소 서 목 마른 -

관 세 음 - 보 살님 께 귀의하오니 -
중 생에 게 감 로수 를 내리시-고 -

저 희들의 어린마-음 거-두어주옵소
길 잃은 - 중생에-게 바른길을 열으소

서서 나무구구난 관 세-음-보살

나 무 대 자 대 비 관 세-음-보 살

사십구재의 노래

정운문 작사
김용호 작곡

천천히 비분하게



1. 영 가 님 오 실 때 는 어 디 서 오 시 었 으 며
2. 영 가 님 오 실 때 는 본 래 로 오 신 것 없 고



가 실 때 는 가 실 때 에 는 어 디 로 가 시 나 이 까
가 실 때 는 가 실 때 에 는 어 디 로 가 는 것 없 고



오 시 는 것 한 조 - 각 뜬 구 름 일 어 남 이 요
떠 나 가 고 오 는 데 도 상 관 이 없 - 사 오 니



가 시 는 것 한 조 - 각 뜬 구 름 스 러 집 임 세
그 대 의 - 참 모 습 은 눈 앞 에 눈 앞 에 있 네

엮 불려 낫



님 가 신 지 사 십 구 일 안 에 재 올 리 고



부 처 님 께 공 덕 쌓 을 사 십 구 일 재 라 네

자비방생의 노래

이혜성 작사
서창업 작곡



내 몸 의 자 유 자 재 바 라 고 있 다 면
내 가 족 부 귀 장 성 바 라 고 있 다 면
내 삶 의 영 생 불 멸 바 라 고 있 다 면



잡 히 어 죽 을 목 숨 풀 어 서 살 리 고
죄 없 이 죽 을 목 숨 돌 이 켜 살 리 고
무 참 히 죽 을 목 숨 뉘 우 처 살 리 고



병 들 은 중 - 생 을 도 와 서 고 치 면
굶 주 름 중 - 생 을 도 와 서 보 태 면
고 달 픈 중 - 생 을 도 와 서 건 지 면



자 유 는 돌 아 와 서 내 몸 을 지 키 네
행 복 은 찾 아 와 서 내 가 족 섭 기 네
광 명 은 영 겁 토 록 내 삶 을 비 추 네



방 생 방 - 생 자 비 방 생



방 생 방 - 생 구 고 방 생

연 등

선진규 작사
김용호 작곡

너부 느리지 않게



1. 광 명의 등 지혜의 등 연 등 연 등 연 - 등
2. 중 생의 등 자비의 등 연 등 연 등 연 - 등



불을 밝 - 히 자 기 - 원 드 - 리 며
불을 밝 - 히 자 서 - 원 세 - 우 며



등 근 등 네 모 등 마음 을 밝 - 히 자
연 꽃 등 팔 모 등 누 리 를 밝 - 히 자



봉 축 봉 - - 축 연 등 연 등 연 - 등
봉 축 봉 - - 축 연 등 연 등 연 - 등

불교도의 노래

서정주 작사
김홍신 작곡

장중하게 ♩ = 76



1. 삼 계의 고행에 길을 밝히고 사생의 세계에
2. 인 연의 쓰고도 아리 는 사 슬 윤회의 고달픈



새 빛을 더 할 용 맹이여 오라 - 뜨는 해 처 럼
머 나 먼 길 을 풀 - 려 서 진 여의 꽃 동 산 이 라



겨 레와 중 생을 두루 비치 라 우 리는 감 로 로
향 기여 천 지에 넘 쳐 나 가 라



공 양 하 나 니 우 리에 게 죽 음 도 이 미 없 도 다

봉선사법요집

초판발행 불기 2561년 4월 1일
발행처 봉선사염불원
감수 인묵
교정 정원 남림 해강 용인
편집 일관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

값 10,000원